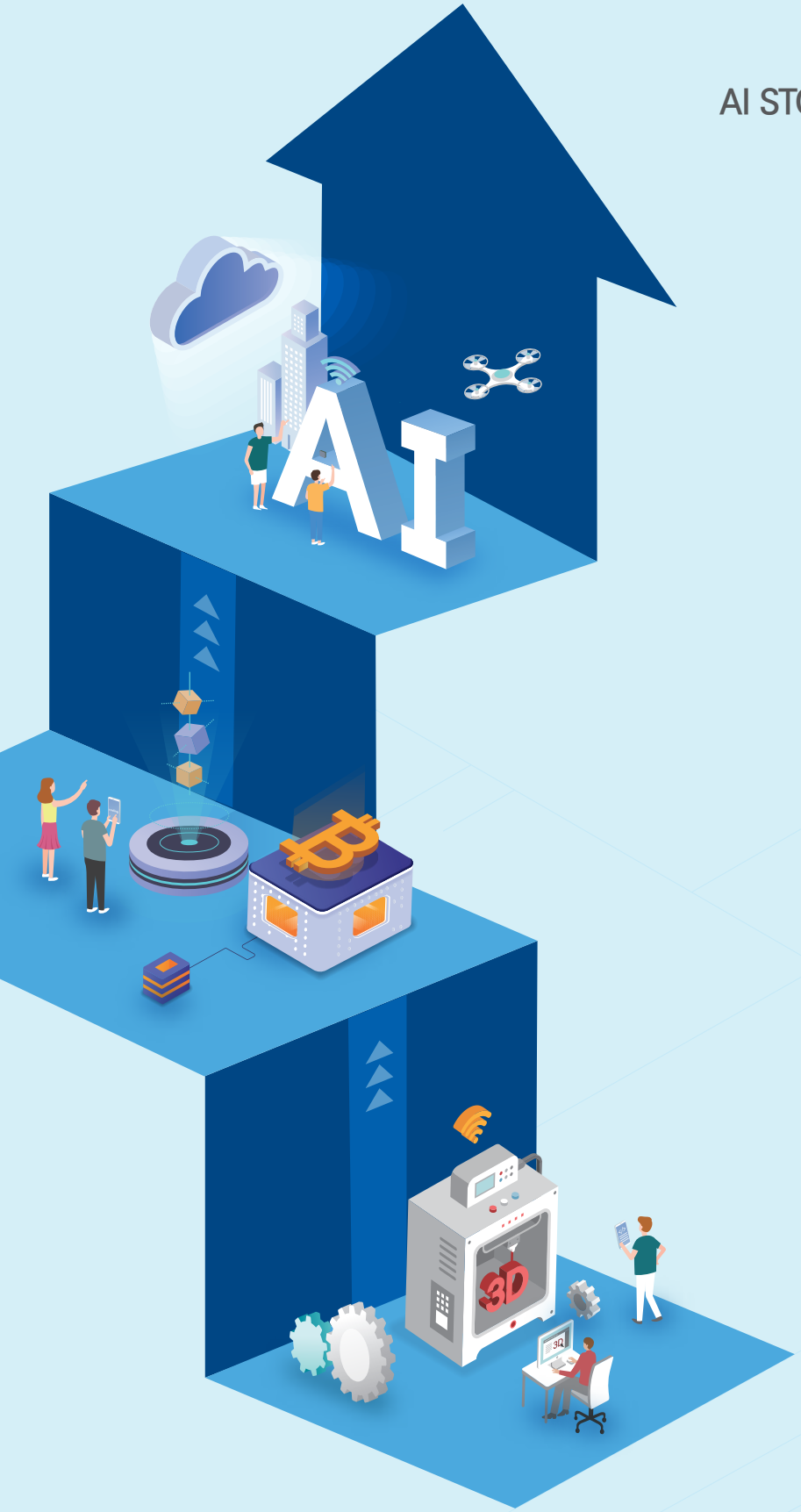
AI STORY, AI로 써 내려간 변화의 이야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2026 우수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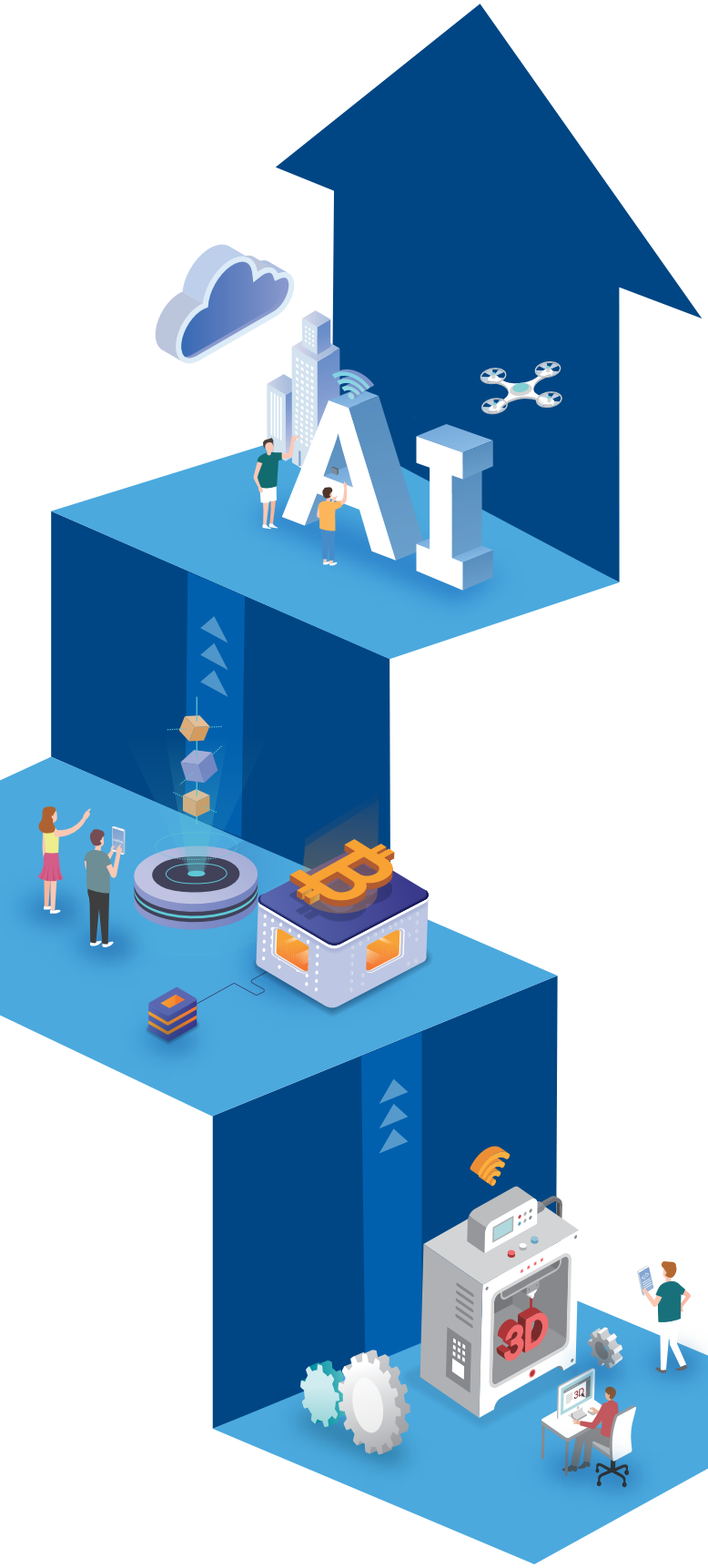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ICT IS ICT Innovation Square

AI STORY, AI로 써 내려간 변화의 이야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2026 우수사례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ICT IS
ICT Innovation Square



CONTENTS

INTRO 04

04 ICT이노베이션스퀘어란?

05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현황

09 2026년 ICT콤플렉스 및 인프라 현황

10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 현황
수도권(서울•경기)
동남권
동북권
충청권
호남권
인천(소규모 거점)

16 2026년 ICT콤플렉스 운영 성과

17 2026년 교육 운영 성과

18 전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성과확산

수도권 우수사례 20

22 기억을 잇는 AI, 어르신의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는 길
박아영 | ㈜온다모임 대표

26 수많은 디지털 흔적 속에서 단서를 찾는 AI 수사관
김윤호 | 부산경찰청 수사관

30 임상 연구의 질문을 AI의 언어로 잇는 사람
이지은 | 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원

동남권 우수사례 34

36 설계도면 한 장에서 시작한 첫 번째 실무 AI 프로젝트
김규빈 | 국립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생

40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과 전통시장의 홍보를 잇는 AI 시스템
서정호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시스템 보안 연구실 연구원

44 AI의 기본기에서 출발해 피지컬 AI 연구로 넓힌 길
임준형 | 대학원 석사과정(인제대학교 졸업)

AI STORY, AI로 써 내려간 변화의 이야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2026 우수사례집

동북권 우수사례 48

50 5초의 손짓과 30%의 제동거리, 현장에서 증명한 피지컬 AI
문성익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생(블루가이즈 대표)

54 배운 기술을 쌓아 두지 않고, 청년의 프로젝트 기회로 잇는 창업가
배승환 | BAESH 대표

58 이야기를 짓던 30년 내공으로 지역에 AI를 잇는 스토리 아키텍트
이상수 | AI 강사 및 작가

충청권 우수사례 62

64 연구에서 구현으로, AI로 현장을 잇는 군사학 박사
김선웅 | 육군 제36보병사단 대대장

68 멈춰 있던 취업 준비를 다시 움직인 AI 관제 프로젝트
김주영 | 대전중앙전파관리소 인턴

72 111만 건의 물류 데이터에서 창고의 막힌 길을 찾은 분석
김종헌 | 육군 종합보급창 주무관

호남권 우수사례 76

78 960시간의 웹 개발 교육에서 양계장 로봇과 우주 AI까지
이혜진 | 전남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

82 160시간의 클라우드 교육에서 세 번의 수상으로 이어진 공공 서비스
정현조 | 프레인글로벌 IT 담당 매니저

86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조직의 AI 혁신
정혜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과장

ICT이노베이션스퀘어란?

사업목적

AI·Data·Network·IoT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무형 전문 AI·SW 개발인력 양성

주요 내용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수도권(서울·경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내 AI·Data·Network 등 AI·SW분야의 교육·개발·테스트·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6층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수도권(서울·경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모델을 권역별*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여 지역 산업계 AI확산 및 전문인력 부족 해소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동북권(강원·경북·대구), 호남권(광주·전주·전남·제주), 충청권(충남·충북·세종), 인천(소규모 거점)

추진체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현황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전국 운영기관

수도권(서울·경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구름,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동남권

부산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벤처기업협회,
스파크랩,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표준협회

동북권

포항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한국AX산업협회

충청권

세종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남테크노파크,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폴리텍Ⅳ대학 산학협력단 충남지소,
고려대학교 세종 산학협력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표준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호남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주산학융합원,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구름,
TMD교육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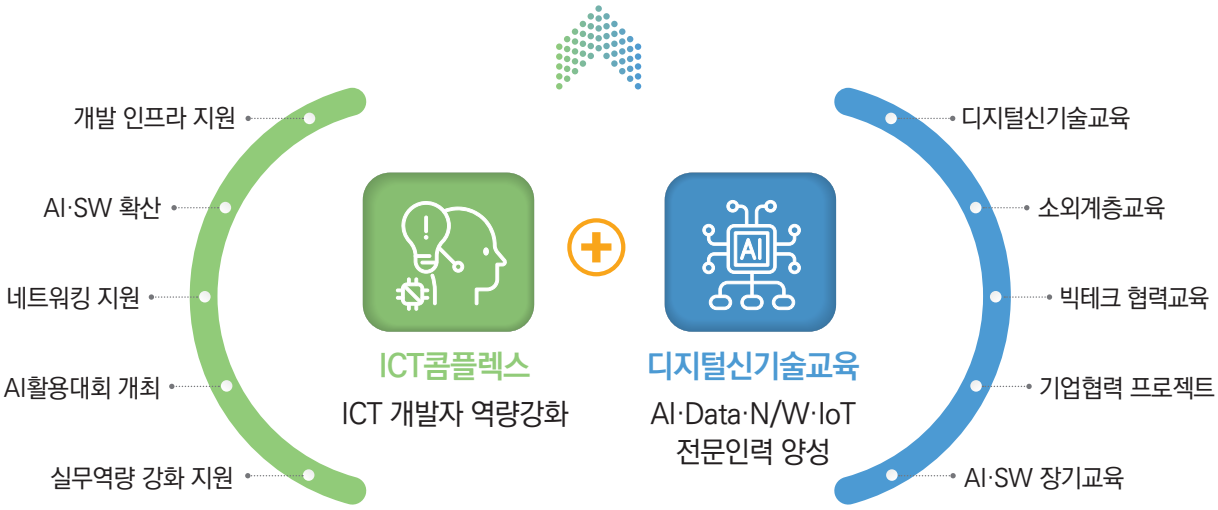
'26. 신규 인천(소규모 거점)

인천테크노파크

사업내용

ICT이노베이션스퀘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Hub)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복수의 디지털신기술 공간 운영



AI·SW개발자를 위한 프로젝트 및
테스트베드 공간, 멘토링 및 커뮤니티 지원 등
인프라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신기술 분야 **수준별·대상별 교육** 및
실무 프로젝트 운영, 빅테크 및
지역별 특화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ICT 콤플렉스

SW개발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발 공간, 장비, 전문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프라	SW개발실, 개발장비(고성능PC, AI 워크스테이션 등) 및 테스트기기 지원
프로그램	실전문제 해결형 SW개발 공모전 및 실증(국내 유일), 기업실무 연계 프로젝트, 취업연계, 전문가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제공

디지털 신기술 교육

AI·Data·Network 등 신기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실습, 프로젝트 등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AI	인공지능 기본 기술, 이미지·영상, 자연어, 음성 처리, AI기술 응용 프로젝트 등 제공
Data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처리,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데이터 시각화 등 제공
Network	5G/6G 이동통신망 기술, Network 프로그래밍, 품질/보안 등 제공

ICT콤플렉스



개발공간 및 장비

권역별 개발공간 및
테스트 장비 대여



대표 프로그램

권역별 개발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개발공간 및 장비	대표 프로그램
수도권 (서울·경기)	창업공간 20석, 개발공간 30석,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발장비 및 테스트기기, 커뮤니티 라운지, 회의실, 가변형 커뮤니티 공간 등	• 실증 기반 SW개발 공모전 • 기업실무 연계프로젝트 • 취업연계, 멘토링 등
동남권	개발공간 30석,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발장비 및 테스트기기, 딥러닝서버, 워크스테이션, 교육장, 회의실, 가변형 커뮤니티 공간	• ICT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AI개발자 커뮤니티 컨퍼런스 • 기업 맞춤형 단기세미나
동북권	개발공간(Open Connect Zone) 6석,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발장비 및 테스트기기, 가변형 커뮤니티 공간(Open Lab) 2실, 강의실(Class A, B) 2실, Testbed 6석	• 기관·기업 연계 협력 프로젝트 • AI 확산 세미나 • 마이크로 경진대회
충청권	교육용 데스크탑,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발장비 및 테스트기기, 교육실, 회의실, 가변형 개발공간, 세미나실	• 자격증 취득 교육 및 우수 기업탐방 • 산업 현장 AX 실전 프로젝트 • 충청권 SW인재 경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호남권	프로젝트룸 2개실, 독립 SW개발 공간 7석,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발장비 및 테스트기기, 영상장비, 가변형 커뮤니티 공간, 탕비실 구비	• ICT 오픈 네트워킹 • 호남IS 해커톤·코딩챌린지 • 개발자 빌드업 캠프 등
인천 (소규모 거점)	노트북 등 개발장비 및 테스트기기, 프로젝트룸 2개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 AI·AX 최신 트렌드 세미나 • 제조기업 AX 인식확산 특강 • AI 전문자격 취득 교육·라이선스 지원

디지털신기술교육

디지털신기술교육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AI·Data·Network·IoT 등 디지털 신기술과 접목한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지역 특화 산업

동남권
- 부산 해양·항만물류, 금융·서비스
- 울산 조선, 자동차, 에너지·화학
- 경남 스마트공장·제조, 기계·로봇



동북권
- 강원 관광, 신소재, 첨단 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전기·전자
- 경북 로봇, 모빌리티, 해양,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첨단제조·의료연계
- 대구 로봇, 미래모빌리티(전기/자율모빌리티), 반도체, ABB, 헬스케어

충청권
- 충남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바이오
- 충북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 세종 스마트시티, 정보보호

호남권
- 광주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반도체, 제조
- 전남 에너지, 농업, 관광, 유통, 물류
- 전주 금융, 공공, 농생명
- 제주 스마트관광, 콘텐츠, 서비스

인천 (소규모 거점)
- 인천 바이오·헬스, 반도체·첨단제조, 항공·물류, 로봇·모빌리티



빅테크 협력교육

Google, AWS, NVIDIA, Intel, CISCO, IBM, MS, NAVER Cloud, ORACLE 등 빅테크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전문강사 등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소외계층교육

쉬었음청년, 자립준비청년, 유휴SW개발자, 경력보유여성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교육 운영을 통해 교육정보 접근의 비대칭 해소와 기술 이용수준 향상 지원

기업협력 프로젝트

지역 기업 연계 실습 프로젝트 교육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문제해결형 실무인재 양성

AI·SW 장기교육

AI·SW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장기 온라인 개발자 양성 교육

2026년 ICT콤플렉스 및 인프라 현황

디지털신기술 교육장 총 37개소



수도권(서울·경기) ICT콤플렉스

위 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6층

교육장 서울, 경기 7개소



인천(소규모 거점) ICT콤플렉스

위 치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교육장 간석동, 도화동, 송도동 3개소



충청권 ICT콤플렉스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562 2층

교육장 충남, 충북, 세종 7개소



동북권 ICT콤플렉스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266 첨단해양R&D센터 9층

교육장 강원, 경북, 대구 8개소



동남권 ICT콤플렉스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74-1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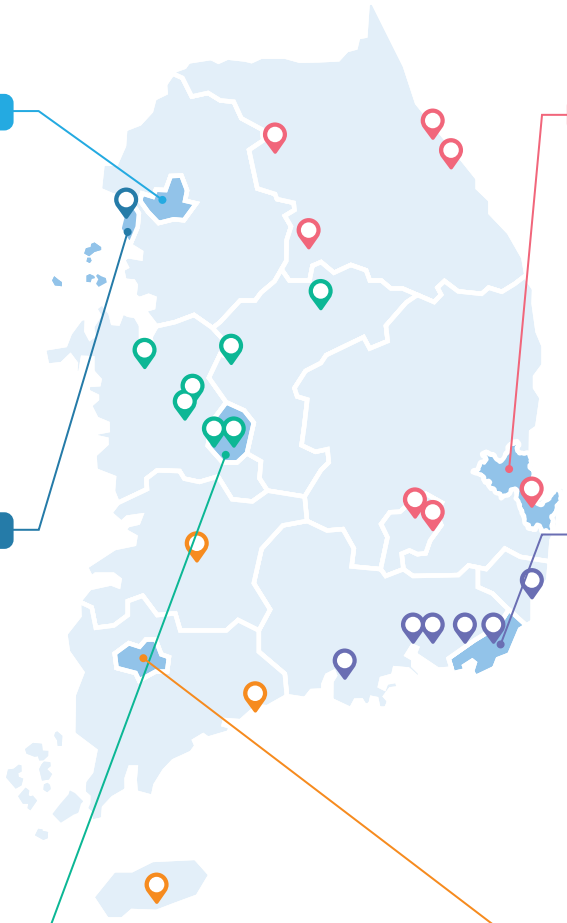
교육장 부산, 울산, 경남 8개소



호남권 ICT콤플렉스

위 치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6 광주영상복합문화관 2~5층

교육장 광주, 전주, 전남, 제주 4개소



수도권(서울·경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 현황

- **ICT콤플렉스 위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6층
- **회원수** 13,761명(2026년 10월 기준) / **누적 이용자수** 90,448명(2026년 10월 기준)
- **디지털신기술 교육장(7개소)**
  - 영등포: 어반322빌딩
  - 판교: 판교디지털센터 A동
  - 송파: IT벤처타워 서관
  - 종로: 코아빌딩
  - 강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빌딩, 더피나클 역삼2(구 우신빌딩), 한국과학기술회관



이용방법

https://ictcoc.kr

ICT 콤플렉스

- **인프라(시설장비) 이용**
  홈페이지 접속 » 공간 및 디바이스를 통해 예약 가능
- **연계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

디지털신기술 교육

- **교육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교육과정 확인 » 원하는 교육과정 신청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 현황

- **ICT콤플렉스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 **회원수** 41,823명(2026년 10월 기준) / **누적 이용자수** 44,354명(2026년 10월 기준)
- **디지털신기술 교육장(8개소)**
  - 부산: 센텀벤처타운, 청년창업허브
  - 울산: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종하이노베이션센터
  -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인제대학교



이용방법

https://www.baeulang.kr/

ICT 콤플렉스

- **인프라(시설장비) 이용**
  홈페이지 접속 » 콤플렉스 장비대여 / 회의실신청을 통해 예약 가능
- **연계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접속 » 콤플렉스 행사안내 /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가능

디지털신기술 교육

- **교육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지역별 교육과정 확인 » 원하는 교육과정 신청

동북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 현황

- **ICT콤플렉스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운하로 266, 첨단해양R&D센터 9층 *2026년 7월 개소
- **회원수** 713명(2026년 10월 기준) / **누적 이용자수** 13,901명(2026년 10월 기준)
- **디지털신기술 교육장(8개소)**
  -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정보문화진흥센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 경북: 포항테크노파크, 동북권ICT콤플렉스
  - 대구: 대구시청별관,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이용방법

https://ictcog.or.kr/

ICT 콤플렉스

- **인프라(시설장비) 이용**
  홈페이지 접속 » 시설·장비 » 시설예약/장비예약을 통해 예약 가능
- **연계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행사·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

디지털신기술 교육

- **교육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AI복합교육 » 원하는 교육과정 신청

충청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 현황

- **ICT콤플렉스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562 2층 *2024년 8월 개소
- **회원수** 17,570명(2026년 10월 기준) / **누적 이용자수** 21,589명(2026년 10월 기준)
- **디지털신기술 교육장(7개소)**
  - 충남: 한국폴리텍Ⅳ대학 충남지소(홍성),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천안)
  -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모충동 교육장,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 세종: 고려대 세종캠퍼스, 세종테크노파크 다정동 교육장



이용방법

https://ict-is.cbist.or.kr/index.do

ICT 콤플렉스

- **인프라(시설장비) 이용**
  홈페이지 접속 » 시설장비안내 » 디바이스 예약 » 디바이스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연계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행사/프로그램 » 분야 선택 » 신청

디지털신기술 교육

- **교육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디지털신기술교육 » 신청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 현황

- **ICT콤플렉스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6 광주영상복합문화관 2~5층
- **회원수** 4,231명(2026년 10월 기준) / **누적 이용자수** 36,438명(2026년 10월 기준)
- **디지털신기술 교육장(4개소)**
  - 광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 전주: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 전남 광양: 커뮤니티센터
  - 제주: 제주산학융합원



이용방법

https://honamict.kr/

ICT 콤플렉스

- **인프라(시설장비) 이용**
  홈페이지 접속 » 공간 및 디바이스 » 공간 예약/디바이스 예약을 통해 예약 가능
- **연계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멘토링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

디지털신기술 교육

- **교육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 원하는 교육과정 신청

인천(소규모 거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프라 현황

- **ICT콤플렉스 위치**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2026년 8월 개소
- **회원수** 104명(2026년 10월 기준) / **누적 이용자수** 310명(2026년 10월 기준)
- **디지털신기술 교육장(3개소)**
  - 남동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 미추홀: 인천IT타워
  -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이용방법

https://incheonict.or.kr/index

ICT 콤플렉스

- **인프라(시설장비) 이용**
  홈페이지 접속 » 운영자 승인 후 이용
- **연계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접속 » 선정 안내 후 프로그램 참여

디지털신기술 교육

- **교육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희망 교육과정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생 선정 안내 후 교육 참여

2026년 ICT콤플렉스 운영 성과

전국 ICT콤플렉스 이용자

시설 이용자 총 **207,040**명

프로그램 이용자 총 **62,272**명

수도권(서울·경기) — 산업연계

빅테크 기업 협력 교육과정

빅테크 기업 및 협력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젝트를 공동 운영하고, 현직자의 기술 자문과 실무 피드백 제공을 통해 현장 중심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자격 취득 지원부터 프로젝트 성과 공유까지 학습·실전·진로를 연결해 주는 교육

동남권 — 네트워킹

AI 개발자 커뮤니티 컨퍼런스

AI·ICT 등 IT분야 개발자 간 직군별 네트워킹과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자율적 학습과 교류를 촉진하여 AI 해커톤, 개발자 토크쇼 등 동남권 개발자의 전문역량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동북권 — 기업협력

Co-Up 프로젝트

기관·기업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개발자는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기업 연계 협력 프로그램

충청권 — 현장실증

산업현장 AX 실전 프로젝트

충청권 주력산업과 지역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문제 해결형 AX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과제 발굴부터 맞춤형 교육, 전문가 멘토링, 현장 적용 및 POC 제작까지 지원하고 취업 연계로 이어지는 AX실전 체제 구축 프로젝트

호남권 — 취업연계

취업지원위원회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수요 기반의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수료생 및 네트워킹 참여자에게 기업·직무 정보와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하여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천(소규모 거점) — 제조AX

제조 AX 연계 지원 모델

제조기업 재직자 대상 AX 실무교육과 대표자·임직원 대상 교육 및 특강으로 AX(AI전환) 역량과 인식을 높이고, 기업별 AX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AX 실행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조기업의 AX 교육과 현장 적용 연계를 지원하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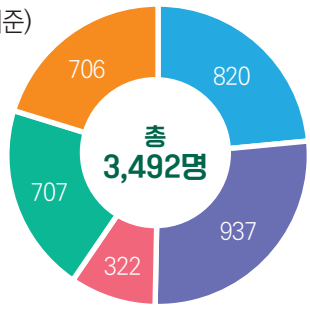
2026년 교육 운영 성과

디지털신기술교육

수료인원('26년 10월 말 기준)

총 **3,492**명

* '26년 수료 목표인원 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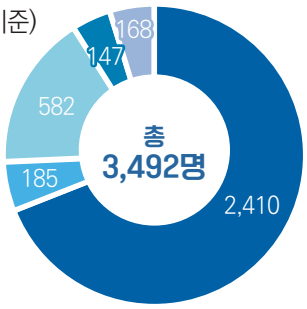
수도권(서울·경기) 동남권 동북권 충청권 호남권

단위 : 명

기술 분야별 수료생 현황

수료인원('26년 10월 말 기준)

총 **3,492**명



AI 블록체인 Data IoT Network

단위 : 명

빅테크 협력교육

전국 **616**명
수료 및 교육중

기업협력 프로젝트

전국 **91**개 기업 참여
109명 수료 및 교육중

AI·SW 장기교육

전국 **120**명
수료 및 교육중

'26년 교육생 만족도

95점

* '26년 10월 말 기준

'26년 교육생 취·창업자 수

취·창업 총 **309**명

* '26년 10월 말 기준

전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성과확산

글로벌 피우다프로젝트

대회명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글로벌 피우다프로젝트
"한·일 사회공공문제(노인돌봄) 해결을 위한 ICT 솔루션 개발"



대회 개요 대학생,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사회·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수요 맞춤형 ICT·SW개발 경진대회로 권역별 성과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과 기술 교류를 촉진

참가대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대학생, 개발자 등

성과 244개 팀, 913명 참여 ➜ 6개팀 수상 및 상금 총 1,000만원 수여

대표 수상작
- Haru(오가사 팀) : 검사처럼 느껴지지 않는 두뇌운동 키오스크
- 이어(이너루프 팀) : 시니어 라이프 아카이빙 정서 케어 플랫폼
- 위듀(지바블 팀) : 스마트워치 기반 고령자 건강관리·가족소통·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리부트AI활용대회

대회명 전국민AI경진대회 – '일상혁신' 트랙 리부트 AI활용대회



대회 개요 쉬었음청년·자립준비청년·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AI 활용교육 및 경진대회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AI 교육기회 제공 및 사회 재진입 유도
* (TRACK1)소외계층청년(쉬었음청년, 자립준비청년), (TRACK2)경력보유여성

참가대상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소외계층교육을 수강한 쉬었음청년, 자립준비청년, 경력보유여성

성과 107명 참여(TRACK1 76명, TRACK2 31명) ➜ 트랙별 5명 수상 및 상금 총 1,000만원 수여

대표 수상작
- 부캐영어(WorkMate English) : 영어를 공부하러 앱에 들어가는 대신, 가상의 회사로 출근하여 업무시간 속에서 직무별 비즈니스 영어를 경험하는 AI 웹 서비스
- 월하랑·달빛마을 : 취약 시간대(밤·새벽) 정서적 안정을 위해 명화 감상, 글쓰기, 동료 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AI·인터랙티브 케어 웹앱

AI STORY,
AI로 써 내려간 변화의 이야기

ICT이노베이션스퀘어

2026 우수사례집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SQUA

수도권 우수사례

숫자로 한 눈에 살펴보는

수도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주요 성과

(~'26년 10월 기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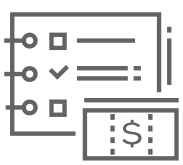
취·창업

219 명



제품·서비스

개발 **300** 건 / 출시 **23** 건



사업 수주

113 건



대외수상

127 건

22 기억을 잇는 AI,
어르신의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는 길
박아영 | ㈜온다모임 대표

26 수많은 디지털 흔적 속에서
단서를 찾는 AI 수사관
김윤호 | 부산경찰청 수사관

30 임상 연구의 질문을
AI의 언어로 잇는 사람
이지은 | 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원



논문

51 건



특허 출원

182 건



상표 출원

6 건



업무협약

52 건



공모전

개최 16 건 / 지원자 1,061 명



임상에서 품은 질문을 기술의 말로 옮겼습니다

- 2025.07
  ㈜온다모임 설립
- 2025.12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의 · 혁신형) 지정
- 2025.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직자 AI 디지털(AID)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 2026.03
  파인드스토리미 AI
  MVP 웹 플랫폼 론칭
- 2026.06
  특허 2건 등록
- 2026.09
  고양시흰돌종합
  사회복지관 'AI와 자서전
  만들기' 실증 착수

성공포인트

교육을 곧바로
회사 R&D로 연결

기업/팀명

박아영
㈜온다모임 대표

참여사업

'올인원 Pass! 인공지능 언어 마스터B' 외
7개 과정(2025~2026, 920시간)

주요성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식재산권 15건 확보

기억을 잇는 AI, 어르신의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는 길

대학병원과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10년 넘게 인지 건강을 다뤄 온 박아영 대표는, 어르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2025년 ㈜온다모임을 세웠다. 개발자가 아니었던 그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8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AI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결과 AI 생애기록 서비스 '파인드스토리미 AI'를 선보이고 지식재산권 15건을 획득하고 바우처 사업 2건에 선정되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2026년 9월 복지관에서 실증에 들어간 그는 회상 콘텐츠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로 넓혀 갈 계획이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비스를 꿈꾸다

고령층의 인지 건강을 돕는 일은 문제 풀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병원에서 약 10년간 인지·신경심리 평가를 수행하고,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약 4년간 일한 박아영 대표가 현장에서 거듭 확인한 사실이다.

"고령층의 인지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를 풀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은 2025년 7월 ㈜온다모임 창업으로 이어졌다. 그는 시니어·헬스케어 분야의 지식과 기획·상용화·연구 역량을 살려 AI 말벗과 회상

박아영 대표는 강사진의 세심한 멘토링과 실제 결과물을 완성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고민을 사업으로 구현하는 역량을 키웠다.





활동, 생애기록, 디지털 출판을 하나로 묶는 서비스를 구상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은 충분해도 그는 개발자가 아니었다.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려면 AI·소프트웨어·블록체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알게 됐다. 실습 중심의 심화 교육이면서, 회사 운영과 육아를 병행해도 평일 낮과 저녁 시간을 조정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과정이었다.

"교육 결과물을 과제로 끝내지 않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온라인이면서도 질 높은 전문 수준의 과정이라 단번에 '이거다!' 싶었던 기억이 나요."

920시간의 실습, 현장의 언어를 기술로 옮기다

그렇게 시작한 배움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8개 과정, 총 920시간으로 이어졌다. '올인원 Pass! 인공지능 언어 마스터B'와 '올인원 Pass! 인공지능 프로젝트 마스터'에서 자연어처리와 RAG의 기초를 다졌고, 서비스 기획 과정에서는 아이디어를 기능과 데이터 흐름으로 나누는 법을 익혔다. 온디바이스 AI와 바이브코딩 과정에서는 고령층 음성을 모으고 다듬는 방법을, 블록체인과 마케팅 과정에서는 자격 인증의 신뢰 구조와 이용자의 구매 흐름을 살폈다.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챗봇 실습이었다. 시니어 이용자를 가정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했더니, AI가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 냈다.

"실제 어르신이라면 질문이 많다고 느껴 대화를 그만두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 더 짧고 쉬운 말로 바꾸니까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은 AI 서비스는 실제 사용자를 얼마나 세심하게 이해하고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그때 체감했습니다."

비전공자인 그가 난도 높은 과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데는 강사진의 힘이 컸다. 수강생 수준에 맞춘 개별 답변과 실습 피드백, 일대일 멘토링이 이어졌고, 처음 접하는 기술 용어에 막힐 때도 질문할 수 있는 통로가 늘 열려 있었다.

회사 업무와의 병행도 쉽지 않았다. 수업이 있는 날은 교육 중심으로 일정을 짜고 회사 일은 이른 아침과 저녁, 주말에 처리했다. 그날 배운 기술을 회사 서비스에 바로 적용해 보니 오히려 재미가 붙었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라기보다, 수업 자체가 회사의 R&D를 진행하는 시간이 됐어요."

막연한 아이디어가 서비스와 사업이 되다

920시간의 교육이 박아영 대표에게 준 가장 큰 변화는 관점이었다. 'AI를 사용하는 사람'에서 'AI로 서비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들고 개발자에게 구현을 요청했다면, 이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며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개발자와 함께 논의한다.

그 변화는 '파인드스토리미 AI'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르신이 어린 시절, 가족, 일, 동네 같은 주제를 따라

AI와 대화하면 AI가 후속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읽기 쉬운 글로 정리해 회고록·자서전으로 엮는다. AI가 이야기를 대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말로 기억을 꺼내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12월 말 내부 테스트에서는 40~50대 여성 자녀 23명 중 26.09%가 구매 의향을 밝혔고, 내부 PoC에서는 참여자 47명 중 37명이 AI와의 대화에 참여해 대화 참여율 78.7%를 기록했다. 그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형 서비스에 진행자의 안내와 활동지를 결합했다.

교육은 사업의 기반도 단단히 다졌다. 블록체인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담은 사업계획서로 인천테크노파크 '2026 블록체인 바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데이터 바우처(사회문제해결형)' 수요기업에 잇달아 선정돼 고령층 음성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특허 등록 2건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15건을 확보했고, 2025년 12월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직자 AI 디지털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치매 예방 워크북 5종과 인지 강화 보드게임도 출시했다.

"막연하게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체화한 것이 교육의 가장 큰 성과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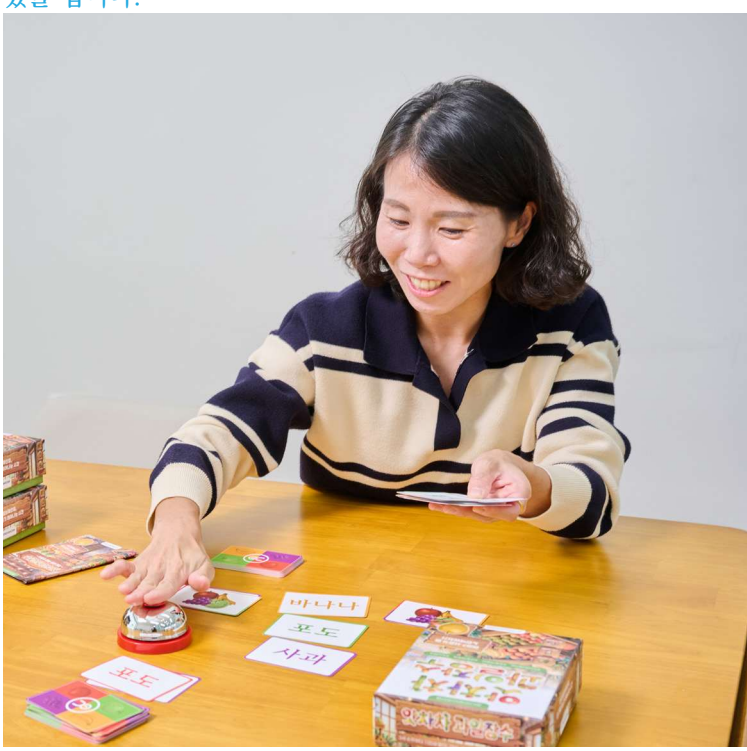
한 사람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다

2026년 9월 16일,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AI와 자서전 만들기' 프로그램의 첫 모임이 열렸다. 대면 교육을 마친 참여자들은 AI와 자기 삶을 이야기하며 생애기록을 쌓아 간다. 9월 10명을 시작으로 10월과 11월에 참여자를 늘리고, 12월에는 공동 전자책을 펴낼 예정이다. 첫 모임에서 어르신들은 'AI를 배우는 교육'보다 '내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남기는 과정'에 더 큰 기대를 보였다.

앞으로 그는 AI 음성 대화로 시니어의 기억을 오래 기록하고, 이를 정서적 교류와 블록체인 기반의 가족 생애기록 자산으로 잇는 서비스로 파인드스토리미 AI를 키울 계획이다. 노인복지관·치매안심센터·지자체와의 사업과 개인·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함께 넓혀, 한 사람의 삶을 꾸준히 쌓아 가는 AI 기반 메모리케어·라이프스토리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다.

그는 개발 지식은 없어도 자신이 잘 아는 현장의 문제를 AI로 풀어 보고 싶은 실무자와 창업자, 연구원에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을 권한다. 단기 교육이 새 기술을 경험하는 데 그쳤다면, 이곳에서는 긴 호흡의 교육과 프로젝트로 결과물까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의 문제에서 사업화까지 한 흐름으로 걸어 본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해결하고 싶은 실제 문제 하나를 들고 수업에 참여해 보세요. 배운 기술을 바로 적용하다 보면 교육이 끝날 때 수료증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새로운 기회가 남아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성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 2025. 03
  '인공지능 AI 시각화 고급 기술' 과정 수강 (5월 수료)
- 2025.
  행정안전부 AI 챔피언(블루) 인증
- 2025.
  경찰청장 표창(유관기관 워킹그룹 운영)
- 2025.
  특별승진
- 2025. 10
  '온디바이스 AI 이해' 과정 수강(11월 수료)
- 2026. 05
  '실무 데이터 기반 딥러닝 실전 모델링' 과정 수강(7월 수료)

성공포인트

수사 경험에
AI 데이터분석을 결합

기업/팀명

김윤호
부산경찰청 수사관

참여사업

'인공지능 AI 시각화 고급 기술' 외 3개 과정
(2025~2026)

주요성과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2025년 특별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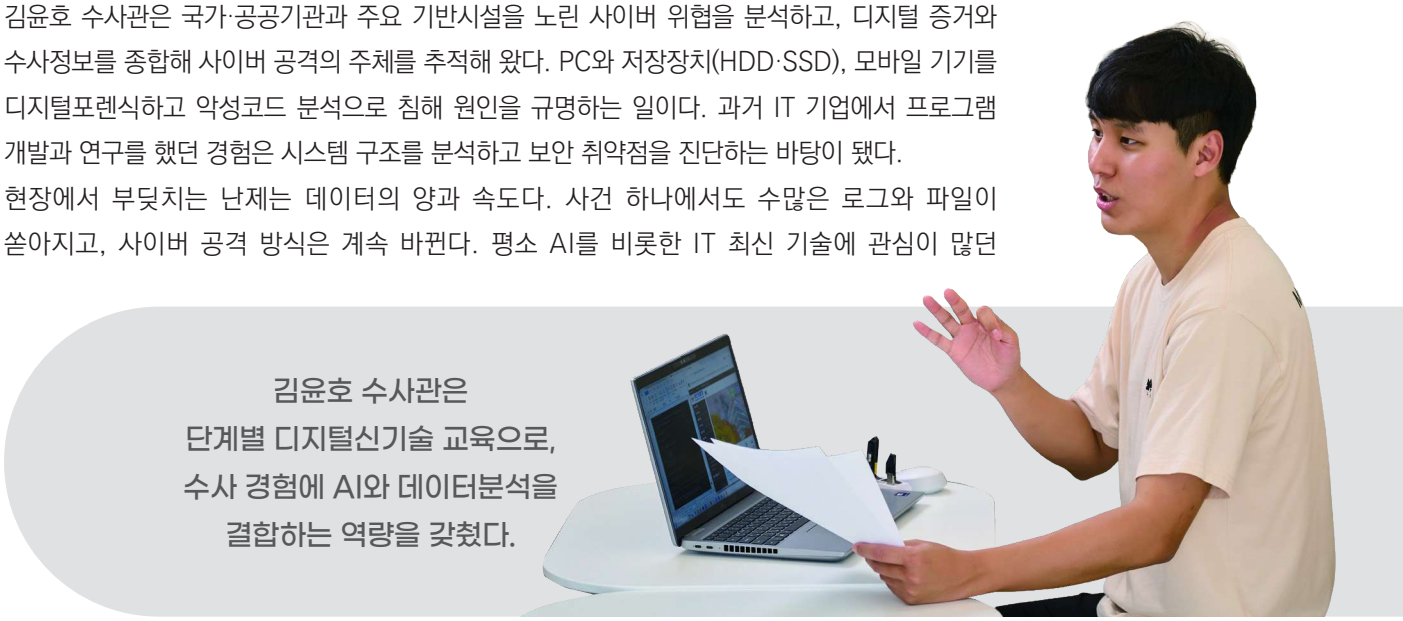
수많은 디지털 흔적 속에서 단서를 찾는 AI 수사관

IT 기업에서 개발·연구를 경험하고 부산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와 디지털포렌식을 맡아 온 김윤호 수사관은 AI로 수사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을 찾았다. AI 시각화와 온디바이스 AI, 딥러닝 실전 모델링 등 4개 과정을 이수한 그는 로그와 디지털 증거의 연관성을 AI로 읽어 내는 수사관이 됐다. 교육으로 쌓은 지식은 행정안전부 AI 챔피언(블루) 인증과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자격으로 이어졌고,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성과와 특별승진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배운 기술을 수사 현장의 성과로 증명하고 관련 기관과 나누고자 한다.

AI가 수사를 어떻게 바꿀지 묻다

악성코드와 로그, IP, 공격 전술은 사이버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소재이다. 사이버 범죄 수사는 한 장의 사진이나 한두 사람의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시스템에 남은 접속 기록과 악성코드의 동작, 여러 IP의 연결 관계를 함께 살펴야 사건의 흐름이 드러난다. 부산경찰청의 김윤호 수사관은 국가·공공기관과 주요 기반시설을 노린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와 수사정보를 종합해 사이버 공격의 주체를 추적해 왔다. PC와 저장장치(HDD·SSD), 모바일 기기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악성코드 분석으로 침해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다. 과거 IT 기업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했던 경험은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고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바탕이 됐다.

현장에서 부딪치는 난제는 데이터의 양과 속도다. 사건 하나에서도 수많은 로그와 파일이 쏟아지고, 사이버 공격 방식은 계속 바뀐다. 평소 AI를 비롯한 IT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던



김윤호 수사관은
단계별 디지털신기술 교육으로,
수사 경험에 AI와 데이터분석을
결합하는 역량을 갖췄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분석하고,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했다. 그러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실무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을 알게 됐다.

"단순한 AI 기술 습득을 넘어, 실제 수사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일과 배움을 병행하며 AI의 폭을 넓히다

그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4개 과정을 차례로 이수했다. 2025년 3~5월 '인공지능 AI 시각화 고급 기술 과정'으로 시작해 6~7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10~11월 '온디바이스 AI 이해 과정'을 거쳤고, 2026년 5~7월에는 '실무 데이터 기반 딥러닝 실전 모델링 과정'을 들었다. 시각화 고급 과정과 딥러닝 실전 모델링 과정에서는 이미지나 영상에서 객체의 위치를 인식하고 종류를 분류하는 비전 기술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 객체 인식까지 다뤘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습하면서 현장의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던 게 교육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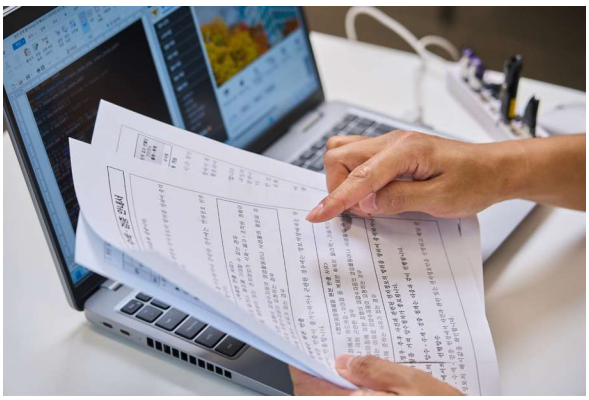
로그와 증거 사이의 연관성을 AI로 읽다

교육에서 익힌 AI 시각화와 딥러닝, 온디바이스 AI는 김윤호 수사관이 맡아 온 침해사고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사이버 수사 업무에 AI를 접목할 방법을 찾는 출발점이 됐다. 침해사고가 일어나면 확보되는 각종 로그와 악성파일, 디지털 증거, 사이버 위협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정리·분석하고, 복잡한 정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데 AI와 데이터분석 기술을 쓸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웠다. 그 덕분에 복잡한 사건의 공격 흐름과 연관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으로 쌓은 지식은 공인된 역량으로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AI 챔피언(블루) 인증으로 공공 분야 AI 활용 역량을 인정받았고, 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분석 역량을 더했다.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을 사이버 수사와 디지털포렌식에 접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해왔던 익숙한 업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와 딥러닝 실전 모델링 과정을 거치며, 그는 기존의 룰 기반 분석이 지닌 한계를 넘어설 열쇠가 고도화된 AI 데이터분석에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방대한 로그와 악성코드 분석에 AI 모델을 결합하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상징후를 빠르게 탐지하고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보안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경험을 기관과 지역에 나누다

사이버 위협은 한 기관의 경계 안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위협정보의 공유·신고 체계를 마련했고, 신속한 피해 예방과 수사 연계 체계를 갖춘 공로로 2025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실제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방산보안협회와 방산업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에서 20여 차례 강의하며 기업 실무자와 학생들에게 AI와 사이버 보안 지식을 공유했다. 이런 활동과 수사 실적을 바탕으로 그는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성과를 냈고, 2025년에는 특별승진했다.

앞으로 그는 AI를 비롯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성과를 관련 기관과 산업 현장에 나눠 공공 분야 전반의 기술 대응 역량을 높이려 한다. 침해사고와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A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대한 수사 자료와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사이버 공격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배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실제 성과로 증명하며, 그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넓혀 가는 실천형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는 직장에 다니며 배움을 이어 가려는 이들에게 이 교육을 권한다. 다른 교육이나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일·학습을 병행하는 수강생을 많이 배려해 주기 때문이다. 배우려는 열정은 있지만 일뿐 아니라 육아와 가사로 늦은 시간에만 짬을 낼 수 있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이라 강조하며, 그는 후배 교육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도전하는 자세를 잃지 마시고, 교육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각자의 업무와 일상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자신만의 전문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전과 경험이 더 나은 삶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개발팀과 같은 질문을 나눌 말을 배웠습니다

- 2025.06
  국내 특허 등록
  (공동발명)
- 2026.04
  '올인원 Pass! 인공지능 언어 마스터 1기' 수강 시작
  (160시간, 6월 26일 수료)
- 2026.06
  '모두의 창업' 1기 1라운드 진출(Watching My Pet)
- 2026.07
  미국 특허 등록
  (공동발명)
- 2026.08
  수도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우수사례 3인 선정
- 2026.09
  '모두의 창업' 2기 1라운드 통과

성공포인트

임상의 질문을 개발 언어로 번역

기업/팀명

이지은
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원

참여사업

'올인원 Pass! 인공지능 언어 마스터 1기'
(2026, 160시간)

주요성과

모두의 창업
1·2기 진출

임상 연구의 질문을 AI의 언어로 잇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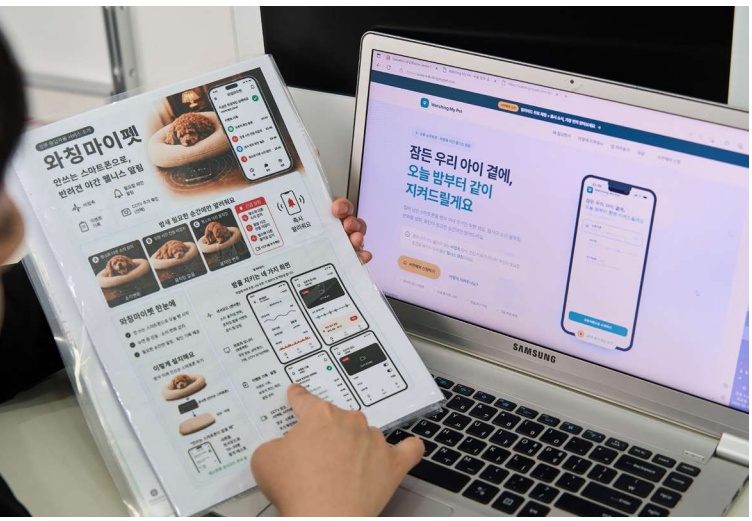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운영해 온 이지은 씨는 임상 연구의 질문을 개발자와 더 정확히 나누고 싶어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인공지능 언어 과정을 찾았다. 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RAG)의 구조를 익힌 그는 개발팀에 필요한 입력 자료와 확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 배움은 반려동물 돌봄 아이디어 'Watching My Pet'으로 이어져 '모두의 창업' 1·2기 1라운드 진출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임상·의료 AI 과제의 기획·운영 직무에 도전하며 시제품 검증도 이어갈 계획이다.

임상과 개발 사이에서 질문이 깊어지다

의료 AI 프로젝트는 데이터만 많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정하고, 개인정보와 연구 윤리를 지키며 데이터를 구성하고, 모델의 결과를 의료진이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아야 한다. 2017년 4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이지은 씨는 이 복잡한 과정을 조율해 왔다. 연구책임자를 지원하는 참여연구원이자 실무 PM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 4개에 참여해 과제 기획과 계획서·보고서 작성, 다기관 일정·산출물 관리, 뇌영상 전처리·분석을 맡았다. 라이프로그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멀티모달 모델 개발에서는 요구사항과 검증 자료를 모으고 기관 간 협업을 조율했다. 뇌혈관·뇌졸중 영상 연구에 참여해 특허 공동발명자와 논문 공동저자·공동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지은 전 연구원은 언어모델의 구조를
직접 따라가 보는 고급 실습 교육으로,
임상의 요구를 개발자와
같은 언어로 설명하는 힘을 얻었다.





선임 개발자들과 일할수록 질문은 깊어졌다. 데이터 전처리 방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학습과 검증 데이터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지표가 좋아도 실제 환경에서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2025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AI 전문가 과정과 해외 연수로 AI의 기초를 다진 그는 2026년, 한 걸음 더 들어가기로 했다.

"임상 연구 경험을 AI 개발자와 더 정확히 나누고, 연구 질문을 데이터와 기능 요구사항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160시간 동안 언어모델의 구조를 따라가다

그가 택한 과정은 2026년 4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160시간 진행된 '올인원 Pass! 인공지능 언어 마스터 1기'였다. 파이썬 심화와 딥러닝에서 출발해 RNN·LSTM, 어텐션·트랜스포머, BERT, GPT 기반 대규모 언어모델, 문서를 찾아 답변의 근거로 쓰는 검색증강생성(RAG), API 연동과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 개발·배포까지 다루는 고급 과정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RAG와 GPT API 연동 실습이다. 질문과 참고 자료, 답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직접 따라가 본 시간이었다.

"임상 연구자가 개발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 그때 알게 됐어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임상·연구 용어와 파이썬·딥러닝·언어모델 용어를 한꺼번에 소화해야 했다. 그는 연구 업무와 저녁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낯선 개념을 용어별로 정리하고, 코드와 실습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기능을 입력 자료와 출력, 평가 기준으로 나눠 생각하는 습관은 배운 내용을 연구에 적용하는 다리가 됐다.

개발자와 같은 언어로 일하게 되다

교육 뒤 달라진 것은 소통의 정확도였다. 언어모델과 RAG, API 연동의 기본 구조를 익히자 개발 내용을 직접 질문하고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과제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개발자에게 요청할 때도 입력 자료와 기대 결과, 확인 기준을 훨씬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2026년 8월 국책과제 최종보고서를 쓸 때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과 개발 흐름을 더 명확히 파악해 반영했다.

"제가 직접 임상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검증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연구와 개발 사이의 소통과 과제를 문서로 정리하는 역량이 높아진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관찰과 검증의 관점은 일상의 문제로도 이어졌다. 그가 주목한 것은 밤사이 반려동물의 상태를 거듭 확인해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과, 계속 지켜보기 어려워 생기는 확인 공백이었다. 고가 장비를 새로 사기보다 집에 남은 스마트폰의 움직임 센서와 마이크를 활용하면 된다고 봤다. 그렇게 구상한 'Watching My Pet'은 유휴 스마트폰으로 움직임 변화, 일정 시간 움직임 없음, 소리 변화를 확인해 보호자에게 알리는 초기 웰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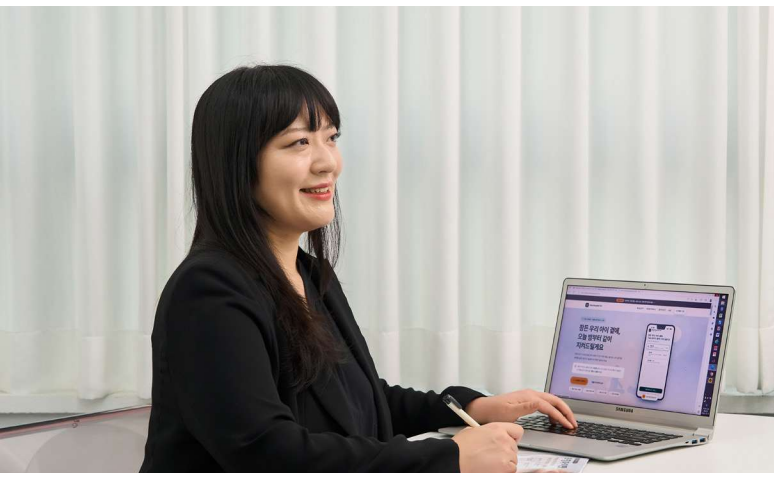
시제품이다. 질병을 진단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생활 변화를 알리는 보조 도구로 범위를 분명히 했다. 규칙 기반 웹 시제품을 만들어 배포한 뒤 목업 시뮬레이션으로 알림과 사용 흐름을 점검했다.

아이디어는 교육을 수강 중이던 2026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두의 창업' 1기 1라운드에 진출하며 첫 외부 검증을 받았다. 네 차례 멘토링을 받으며 사용자 의견을 확인하고 랜딩페이지와 초기 시제품을 점검했다. 연구 질문을 제품 가설로 바꾸고 기술 구현과 안전한 표현의 경계를 따져 본 시간이었다. 1기 2라운드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는 교육을 마치고 9월 '모두의 창업' 2기에 다시 도전해 1라운드를 통과했다.

"교육이 이 성과들을 직접 만들어 냈다고 하기보다는, AI를 이해하고 시제품을 구체화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방향을 잃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다

재직 중 공동발명자로 참여한 연구는 2026년 7월 미국 특허, 8월 국내 특허로 등록됐다. 교육과는 별개인 국책 과제의 성과지만, 그가 걸어온 연구의 무게를 보여준다.



2026년 9월 병원을 떠난 그는 임상 연구와 다기관 과제 운영 경험, 교육으로 넓힌 개발 이해를 살려 임상·의료 연구와 AI 과제의 기획·운영 직무에 도전하려 한다. 다기관 협업부터 논문·특허 성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의료 AI PM이 그가 그리는 모습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멘토와 함께 모두의 창업 2기 2라운드 진출을 준비하며, 시제품의 재현성과 알림 오류, 사용성을 기종과 설치 환경마다 확인해 실현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임상 현장의 요구와 개발 산출물 사이를 잇고, 일정과 자료, 보고서를 꼼꼼히 관리하는 사람으로 기여하고 싶어요."

의료와 반려동물, 두 활동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은 같다.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신호를 데이터로 포착하고, 전문가와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그는 임상·바이오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려는 연구자와,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 초기 창업자에게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을 권한다. 기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파이썬에서 언어모델, RAG, API 활용까지 흐름을 따라가며 개발자와 소통할 기반을 얻을 수 있어서다. 2025년 들은 AI 전문가 과정이 AI 전반을 폭넓게 다뤘다면, 2026년의 과정은 인공지능 언어 기술을 깊이 파고들 수 있었던 점이 달랐다. 그는 자신과 같은 길에 들어설 후배들에게 응원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가려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묻다 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보이고, 작은 실행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각자의 이유와 방향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SQUA

동남권 우수사례

숫자로 한 눈에 살펴보는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주요 성과

(~'26년 10월 기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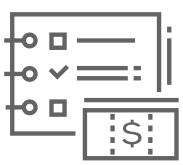
취·창업

198 명



제품·서비스

개발 45 건 / 출시 19 건



사업 수주

93 건



대외수상

131 건

36 | 설계도면 한 장에서 시작한 첫 번째 실무 AI 프로젝트
김규빈 | 국립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생

40 |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과 전통시장의 홍보를 잇는 AI 시스템
서정호 |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시스템 보안 연구실 연구원

44 | AI의 기본기에서 출발해 피지컬 AI 연구로 넓힌 길
임준형 | 대학원 석사과정(인제대학교 졸업)



논문

149 건



특허 출원

89 건



상표 출원

10 건



업무협약

117 건



공모전

개최 9 건 / 지원자 1,741 명



예제가 아닌 기업의 진짜 도면이 교재였습니다

- **2025. 04**
  '이래가꼬 프로젝트' 참여 (160시간, 9월 30일까지)
- **2025. 07**
  SK쉴더스 루키즈 4기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 과정 참여 (~2026.01)
- **2025. 11**
  이래가꼬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대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상)
- **2026. 01**
  SK쉴더스 루키즈 4기 최우수상(AI 기반 주식 포트폴리오 관제 서비스)
- **2026. 03**
  SQLD 취득

성공포인트

데이터 한계에 맞춘 해법 수정

기업/팀명

김규빈
국립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생

참여사업

'이래가꼬 프로젝트' (2025, 160시간)

주요성과

성과공유회 대상,
기사 자격증 취득

설계도면 한 장에서 시작한 첫 번째 실무 AI 프로젝트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기업의 실무를 다루는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해 취업 준비가 막막했던 김규빈 씨는 전공 교수의 추천으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기업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여기서 친환경 설비기업의 실제 설계도면을 다룬 그는 데이터의 한계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고쳐 나가는 실무의 방식을 익혔다. 설계도면에서 부품을 인식해 자재명세서(BOM)를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는 성과공유회 대상과 동남권 우수사례 부산 지역 최우수 사례자 선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부산·경남 지역의 IT·통신 분야에서 현장의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론만 알던 전공자, 기업의 문제를 만나다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규빈 씨는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의 기초를 학교에서 익혔다. 그러나 그렇게 익힌 AI를 학과 수업이나 동아리의 프로젝트에 활용했을 뿐, 실제 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은 없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는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프로젝트나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때 전공 교수님이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기업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전달받고 현업 데이터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었다. 단순한 이론 수업과는 다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친환경 설비기업 ㈜파나시아와 함께 제조 현장의 설계도면을 다룬다는 점이 참여를 결심하게 했다.

"기술을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김규빈 씨는 실제 기업 데이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교육으로 데이터의 한계에 맞춰 해법을 찾아가는 실무 역량을 갖췄다.

막막한 출발점에서 방향을 찾아가다

2025년 4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2025 이래가꼬 프로젝트'는 부산벤처기업협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의 하나로 이론 40시간과 프로젝트 실습 120시간으로 짜인 160시간의 중급 과정이었다. 이론 시간에는 기업의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처리해 AI 해결책으로 잇는 방법을 배웠다. 실습에서는 팀 단위로 실제 기업 데이터를 다루며 현직자 멘토에게 데이터 처리 방법과 해결 방향, 더 공부할 내용에 대해 꾸준히 피드백을 받았다. 프로젝트 주제는 '생산기업에서의 AI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BOM 자동 생성 기술 개발'이었다. 선박용 설계도면을 AI로 분석해 부품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재명세서(BOM)를 자동으로 만드는 일이다.

가장 큰 고비는 출발점이었다. 팀은 컴퓨터공학 전공자 2명과 복수전공자 2명으로 꾸려졌지만, AI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해 본 사람은 없었다. 어떤 기술부터 공부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계획서는 어떻게 쓸지부터 막막했다. BOM이라는 개념도, 산업 현장의 설계도면도 처음이었다. AI 기술보다 먼저 기업의 업무와 도면의 구조, BOM의 역할부터 이해해야 했다.

길을 연 것은 현직자 멘토들이었다. 무엇부터 공부할지, 문제를 어떤 단위로 나눌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단계적으로 안내해 줬다. 기업 탐방에서 실제 도면과 업무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팀원들은 역할을 나눠 필요한 내용을 각자 공부하고 공유하며 조금씩 방향을 잡아갔다.

데이터의 한계에 맞춰 해법을 고쳐 나가다

그는 팀에서 데이터 전처리와 라벨링을 주로 맡았다. 기업이 제공한 도면은 처음부터 AI 학습에 맞게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었다. 도면에서 학습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찾아 개별 이미지로 추출하고, 부품마다 맞는



라벨을 정확히 매칭해야 했다. 팀원들과 데이터를 반복해 확인하며 라벨링 기준을 맞췄고, YOLO 기반 객체 탐지 과정은 구글 코랩으로 공유하며 함께 진행했다.

문제는 데이터의 양이었다. 처음에는 도면에서 추출한 부품 이미지로 모델이 부품을 직접 인식하도록 학습시킬 계획이었지만, 학습에 쓸 만한 양질의 도면이 충분하지 않았다.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보고, 도면의 범례 영역을 찾아 OCR로 부품 정보를 읽어 내는 방법도 시도했다. 그러나 실제 도면에서는 문자 인식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팀원들과 멘토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팀이 택한 길은 데이터를 직접 늘리는 것이었다. 기존 부품 이미지를 새 이미지의 여러 위치에 무작위로 배치하고 서로 다른 조합으로 합성해 가상의 도면 형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랜덤 배치 기반 데이터 증강'이다. 부품의 위치와 조합이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자 모델이 여러 상황에서 부품의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AI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모델을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데이터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해결 방식을 고쳐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데이터 전처리가 모델 학습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체감했다. 김규빈 씨의 팀 '뽀로로와 친구들'은 2025년 11월 이래가꼬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서 대상(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다.



"수상도 의미가 있었지만, 처음 접하는 문제를 팀원들과 분석하고 여러 번 방향을 수정하면서 결과물을 완성해 낸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경험이 다음 기회로 이어지다

프로젝트 경험은 다음 도전의 밑바탕이 됐다. 2025년 7월부터 참여한 SK쉴더스 루키즈 4기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양성 과정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선발됐고, 팀 프로젝트와 AI·데이터 내용에도 빠르게 적응했다. 약 3개월간 진행한 최종 프로젝트 'AI 기반 주식 포트폴리오 관제 서비스'는 금융 특화 감성분석 모델 FinBERT로 뉴스를 분석하고, XGBoost와 LightGBM 기반 앙상블 모델로 종목별 점수를 산출해 리밸런싱 판단을 돕는 서비스다. 이 작품으로 2026년 1월 14일 최우수상을 받았다.

취업 준비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대표 경험이 됐다. 그는 여러 기업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데이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팀원들과 어떻게 협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보처리기사와 SQLD,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취득했고, 지금은 정보통신기사를 준비하며 부산·경남 지역 IT·통신 기업의 개발과 데이터 처리 직무에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를 만나도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익혀 해결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하나의 경험이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쌓인 경험이 다시 더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학교에서 이론을 배웠지만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한 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자신의 역량을 보여 줄 구체적인 경험을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이래가꼬 프로젝트 참여를 권한다. 정해진 실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문제와 데이터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처음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며 데이터를 다시 가공하는 과정이 이론 중심 교육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 성과공유회와 우수사례 선정처럼 결과물을 외부에 보여 줄 기회로 이어지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팀원들과 멘토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에는 늘 YES라고 답했습니다

- 2025.08
  다움 대학생 리얼톤 특별상(푸클)
- 2025.10
  'Physical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이론 및 실습' 수강(160시간, 12월 7일 수료)
- 2025.11
  제13회 K-해커톤 최우수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스마트 글라스)
- 2025.11
  울산대학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스마트 글라스)
- 2025.12
  울산대학교 캡스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푸클)
- 2026.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시스템 보안 연구실 연구원

성공포인트

실제 환경에서 동작하는 AI

기업/팀명

서정호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시스템 보안 연구실 연구원

참여사업

'Physical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이론 및 실습'(2025, 160시간)

주요성과

K-해커톤 최우수상,
전통시장 쇼폼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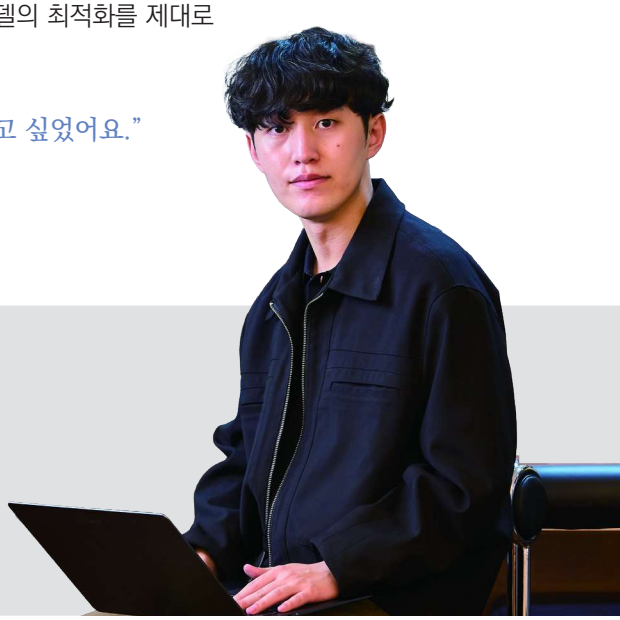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과 전통시장의 홍보를 잇는 AI 시스템

울산대학교에서 IT융합을 공부하며 여러 공모전에 도전해 온 서정호 연구원은 AI 모델을 실제 하드웨어와 서비스에서 구동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피지컬 AI 과정을 찾았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모델 경량화·최적화를 익힌 그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AI를 안정적으로 동작시키는 개발자로 성장했다. 배운 기술은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스마트 글라스와 숏폼 제작 서비스 '푸클'에 쓰여 제13회 K-해커톤 최우수상과 전통시장 실증으로 이어졌다. UNIST 시스템 보안 연구실 연구원이 된 그는 AI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역량까지 갖춘 개발자이자 연구자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론을 넘어 현실의 장치로 향하다

울산대학교 IT융합학부를 졸업한 서정호 연구원은 AI 개발과 데이터 처리, 서비스 구축, 가상화와 배포 환경 구성을 두루 다룬다. 그는 AI를 이론 학습에서 끝내기보다 실제 하드웨어와 서비스에 적용하는 역량을 키우고 싶었다. 저대역폭·저비용 서버에서 영상 생성이나 이미지 처리처럼 무거운 AI를 돌릴 때마다 지연과 오류가 생겼고, 이를 줄이려면 시스템과 모델의 최적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했다.

"AI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구동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서정호 연구원은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모델을 최적화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실제 장치와 서비스에서 AI를
안정적으로 동작시키는 역량을 갖췄다.



160시간 동안 제한된 환경의 병목과 씨름하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160시간 진행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Physical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이론 및 실습'은 머신러닝·딥러닝의 기본 이론에서 출발해 물리 환경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법, 모델의 성능 개선과 경량화·최적화까지 이론과 실습을 함께 다뤘다. 제한된 하드웨어에서 모델을 실제로 동작시키고 처리 속도와 병목을 개선하는 과정을 직접 실습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김대환 교수의 수업이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문제를 푸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줬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배운 기술을 실제 서비스와 하드웨어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시키는 일이었다. 개발 환경과 장비 성능에 따라 처리 속도와 결과가 달라졌고, 배포 환경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오류와 병목이 생겼다. 그는 교육에서 배운 최적화 방법과 실습 자료를 반복해 적용하고, 오류가 나면 원인을 하나씩 확인하며 여러 방법을 직접 시험했다.

"실제 환경에서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환자의 멈춘 걸음과 시장의 홍보를 돕다

배운 기술은 두 프로젝트에 쓰였다. 첫째는 파킨슨병 환자가 걷다가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보행동결을 완화하는 스마트 글라스다. 가속도·자이로 센서로 보행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다 보행동결이 생기면 안경 화면에 라인이나 발판 같은 시각 신호와 음성 피드백을 준다. 5명으로 꾸려진 팀에서 그는 AI·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아 센서 데이터 처리와 보행동결 감지 알고리즘, 스마트 글라스 기능을 구현했다. 교육에서 배운 실시간 처리 방법은 환자의 불규칙한 보행 신호를 다듬는 데 그대로 쓰였다.

스마트 글라스는 실험실 안에서만 작동해서는 의미가 없었다. 팀은 파킨슨병 관련 단체와 꾸준히 의견을 나누고, 울산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로 환자 5명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시험했다. 의료진은 환자마다 보폭이 달라 같은 간격의 유도선은 실제 걸음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팀은 사용자의 보폭에 맞춰 라인과 발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데이터상 분명해 보이는 패턴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고, 의료진이 보는 임상적 의미와 개발팀이 보는 수치 사이에는 조율이 필요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11월 제13회 K-해커톤에서 약 500개 팀 가운데 2위인 최우수상(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을 받았고, 울산대학교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도 받았다. 울산매일과 베리타스알파 등 언론에도 소개됐다. 고가의 의료 장비 없이 스마트 글라스 하나로 보행을 돕는 이 접근은 환자의 독립적인 일상과 낙상 예방을 향하고 있다.
둘째는 영상 제작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음식점 쇼폼 홍보영상 제작 플랫폼 '푸클'이다. 그는 Spring Boot 기반 백엔드를 설계하고 파이썬과 연동되는 생성 AI 파이프라인을 구현했다. 이미지와 LLM, TTS, 영상 생성 모델이 한꺼번에 맞물리며 생기는 병목은 교육에서 배운 최적화 방법과 LangChain을 활용한 서비스 구성, 파이썬 기반 자막·TTS 처리로 풀었다. 전통시장 점포 3곳에 서비스를 적용해 생성된 영상을 네이버 지도 음식점 페이지에 등록하는 실증도 진행했다. 마케팅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에 바로 쓸 수 있는 영상을 제공하려는 시도였다. 푸클은 2025년 8월 다움 대학생 리얼톤 특별상, 12월 울산대학교 캡스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다만 고성능 영상 생성 모델을 쓰면 영상 한 건에 약 1,000원의 비용이 들어, 그는 오픈소스 경량 영상 생성 모델로 서버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보조와 소상공인 홍보라는 전혀 다른 문제였지만, 두 프로젝트는 입력 데이터를 정리하고 여러 기능을 안정적인 순서로 연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제 환자와 점포를 만난 경험은 기능 목록보다 사용 맥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줬다.

현장에서 오래 쓰이는 AI를 꿈꾸다

2026년 울산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지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시스템 보안 연구실 연구원으로 GPU와 물리 서버 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서버·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에서 쌓은 서버 환경과 데이터 처리, 최적화 경험과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며 문제를 풀어 본 일은 연구 업무에 적응하는 데 힘이 됐다. 앞으로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역량까지 갖춘 개발자이자 연구자로 성장하고, 스마트 글라스처럼 기술이 실제 사용자의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도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제 프로젝트와 대회, 서비스 개발까지 이어 갈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그는 AI를 이론이나 모델 학습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나 하드웨어에 적용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Physical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이론 및 실습' 교육을 권한다. 이론을 배운 뒤 직접 실습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안에 늘 'YES'라고 답하며 도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인생을 바꿀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저는 새로운 제안이 오면 가능한 한 'YES'라고 답하며 도전해 왔습니다. 너무 겁먹기보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한 번 'YES'라고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에게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으로 다진 기본기가 연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 **2025.08**
  EKC 2025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발표(Hear, Here!)
- **2025.**
  2025 RISE 문제해결
  IDEA 경진대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 **2025.10**
  '파이썬 기반 인공지능
  기초와 영상처리 응용
  과정' 수강(160시간,
  12월 11일 수료)
- **2025.12**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 최우수상
  (1/10 스케일 자율주행)
- **2026.01**
  부산대학교 RoboRacer
  PNU-현송 챔피언십
  우수상
- **2026.05**
  한국정보통신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생우수논문상

성공포인트

기초를 다져 연구로 확장

기업/팀명

임준형
대학원 석사과정(인제대학교 졸업)

참여사업

'파이썬 기반 인공지능 기초와 영상처리 응용 과정'(2025, 160시간)

주요성과

한국정보통신학회
학생우수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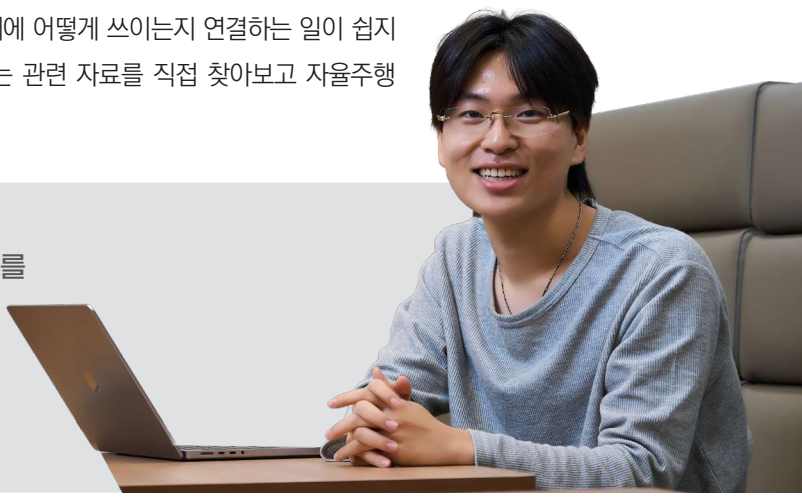
AI의 기본기에서 출발해 피지컬 AI 연구로 넓힌 길

인제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던 임준형 씨는 교수님의 권유로 AI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익히고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과정을 찾았다. 160시간 동안 파이썬 기반 인공지능과 영상처리의 기초를 다진 그는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검증하는 연구자로 나아갔다. 1/10 스케일 자율주행 연구는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 최우수상과 RoboRacer 대회 우수상, 한국정보통신학회 학생우수논문상으로 이어졌다.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자율주행에서 로보틱스를 포함한 피지컬 AI 전반으로 연구를 넓혀 갈 계획이다.

AI의 원리를 처음부터 다시 다지다

인공지능을 전공한 임준형 씨는 파이썬과 ROS2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딥러닝과 강화학습, 모방학습 기술을 다뤄 왔다. AI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후 연구와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쌓고 싶었던 그가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알게 된 것은 교수님의 권유 덕분이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0시간 진행된 '파이썬 기반 인공지능 기초와 영상처리 응용 과정'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영상처리와 객체 인식의 응용 사례를 배우는 교육이었다. 실전 프로젝트보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각 기술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 연결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기본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익히며 기초를 다진 그는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적용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임준형 씨는 인공지능과 영상처리의 원리를
단계적으로 익히는 기초 교육으로,
자율주행과 피지컬 AI 연구로
뻗어 나갈 기본기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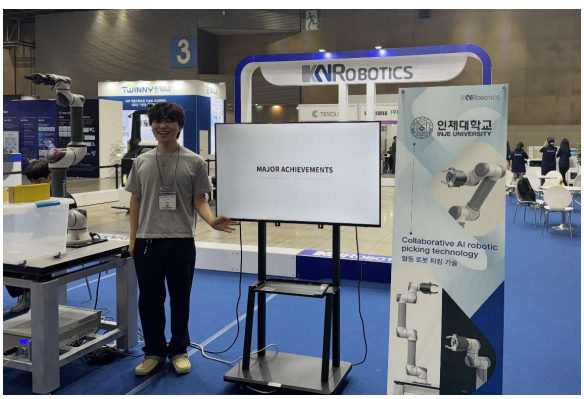


"그때 배운 파이썬 기반 AI와 영상처리의 기초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객체 인식과 딥러닝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연구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됐어요."

소리와 로봇팔로 기술의 쓰임을 넓히다

같은 해 그는 기술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묻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공간 음향 분리 능력을 키우는 AI 기반 훈련 게임 'Hear, Here'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어떤 소리가 겹쳐 있는지 구분하는 능력은 이동과 일상에 직결된다. 이 연구는 2025년 8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EKC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Hear, Here!: A Spatial Audio Separation Enhancement Game for Congenitally Blind Individuals」라는 포스터로 발표됐고, 이후 기능을 고도화해 2025 RISE 문제해결 IDEA 경진대회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영상 AI는 로봇 제어로도 이어졌다. 그는 Isaac Sim 기반 Sim2Real 환경으로 로봇팔 작업 시나리오를 실제 시연이 가능한 수준까지 완성해, 2025년 11월 킨텍스에서 열린 SCM FAIR 2025 기업 전시 부스에서 선보였다. 가상환경에서는 조명과 카메라, 물체의 위치를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작은 차이도 인식과 제어 결과를 바꾼다. 같은 달 SW중심대학 우수작품 경진대회에서도 전시와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 관계자와 참관객의 피드백을 들었다. 전시는 결과를 보여 주는 자리이자, 산업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과 개선 방향을 확인하는 검증의 기회였다.



1/10 크기 자동차로 자율주행을 검증하다

그의 연구 중심은 자율주행이다. F1TENTH(현 RoboRacer) 플랫폼으로 1/10 스케일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뿐 아니라 실제 차량에서 알고리즘 성능을 검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1/10 스케일 자율주행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다. 실제 주행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경로 계획과 주행 기술을 구현한 이 프로젝트는 2025년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G-NEX)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6년 1월에는 부산대학교 RoboRacer PNU-현송 챔피언십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제한된 트랙에서 카메라 영상을 빠르게 처리해 조향 명령으로 바꾸는 과정은 영상처리와 제어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경험이었다.

대회 경험은 모방학습 기반 자율주행 연구로 이어졌다. 운전 영상과 조향값을 학습하는 PilotNet 구조에 주의집중 모듈인 CBAM을 적용하고, 적용 전후의 주행 성능을 비교했다. 모델이 이미지의 채널과 공간 가운데 어떤 특징에 집중할지 학습하게 해 복잡한 장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려는 접근이었다. 연구 결과는 「CBAM-PilotNet 기반 모방학습 자율주행 성능 비교 연구」로 정리돼 2026년 5월 한국정보통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고 학생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모델 구조를 바꾸는 데서 끝내지 않고 같은 조건의 데이터와 평가 기준으로 차이를 설명한 연구였다. 그는 이 모델을 다양한 주행환경에 적용해 안정성과 일반화 성능을 높이고, 물류로봇과 스마트 모빌리티 등 산업 현장에 쓰일 가능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성능을 검증하면서 AI 기술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자율주행에서 피지컬 AI로 연구를 넓히다

인제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실제 차량에 적용하고 검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관심을 로보틱스를 포함한 피지컬 AI 전반으로 넓히는 중이다. 교육에서 쌓은 기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며 학술대회와 경진대회에 도전하는 밑거름이 됐다. 자율주행 차량뿐 아니라 로봇 등 다양한 물리 시스템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행동하도록 하는 AI 기술이 그의 다음 연구 주제다. 접근성 게임의 고도화는 팀원들과의 일정 조율로 잠시 멈춰 있다.

시각장애인의 소리 훈련과 로봇팔, 자율주행차는 영역이 다르지만, 모두 사람과 기계가 실제 환경을 인지하고 움직이는 일과 맞닿아 있다.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오가면서도 그는 교육에서 다진 기초 위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직접 구현해 검증하는 방식을 이어 왔다.

"교육에서 갖춘 기초를 바탕으로 이후 스스로 자율주행 연구와 경진대회까지 넓혀 갈 수 있었어요."

그는 인공지능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 연구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싶은 이들에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파이썬 기반 인공지능 기초와 영상처리 응용 과정'을 권한다.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AI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강조했다.

"처음부터 어려운 기술을 모두 이해하려 하기보다 교육을 통해 기본기를 충실히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SQUA

동북권 우수사례

숫자로 한 눈에 살펴보는

동북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주요 성과

(~'26년 10월 기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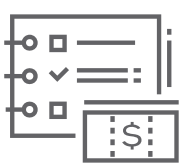
취·창업

626 명



제품·서비스

개발 32 건 / 출시 9 건



사업 수주

16 건



대외수상

36 건

50 | 5초의 손짓과 30%의 제동거리, 현장에서 증명한 피지컬 AI
문성익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생(블루가이즈 대표)

54 | 배운 기술을 쌓아 두지 않고, 청년의 프로젝트 기회로 잇는 창업가
배승환 | BAESH 대표

58 | 이야기를 짓던 30년 내공으로 지역에 AI를 잇는 스토리 아키텍트
이상수 | AI 강사 및 작가







논문	특허 출원	상표 출원	업무협약	공모전
14 건	15 건	2 건	17 건	개최 23 건 / 지원자 1,244 명



가정하던 값을 실측 데이터로 다시 정했습니다

- 2025.11
  LIG D&A 산학협력 PBL 참여(IMU 센서 고장 진단 모델 개발)
- 2026.01
  창업동아리 블루가이즈 창설
- 2026.02
  '대구 특화과정(자율주행 로봇 AI)' 수료(120시간)
- 2026.03
  MIT Global Startup Workshop 창업 경진대회 결선 4위
- 2026.07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RTOS 기반 비상 제동 시스템)
- 2026.08
  교육부 학생 창업유망팀 300+ 선정

성공포인트

판정 기준을
실측 데이터로 결정

기업/팀명

문성익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학생(블루가이즈 대표)

참여사업

'대구 특화과정(자율주행 로봇 AI)'
(2026, 120시간)

주요성과

학생 창업유망팀 300+ 선정,
학회 논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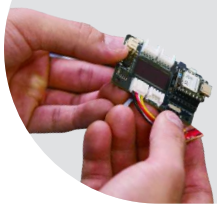
5초의 손짓과 30%의 제동거리, 현장에서 증명한 피지컬 AI

회로와 센서를 다뤄 온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문성익 학생은 센서의 신호가 로봇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경험하고 싶어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대구특화과정(자율주행 로봇 AI)을 찾았다. 4주 동안 일곱 개의 ROS2 노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배송 로봇을 완성한 그는 판정 기준을 실측 데이터로 정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했다. 그 방식은 이륜차 사고 구조 모듈 '스마트 바이폿'과 비상 제동 연구로 이어져 교육부 학생 창업유망팀 300+ 선정과 학회 논문 발표로 결실을 맺었다. 2027년 2월 졸업하는 그는 지역 산업에서 임베디드·모빌리티 안전 엔지니어로 일하며 창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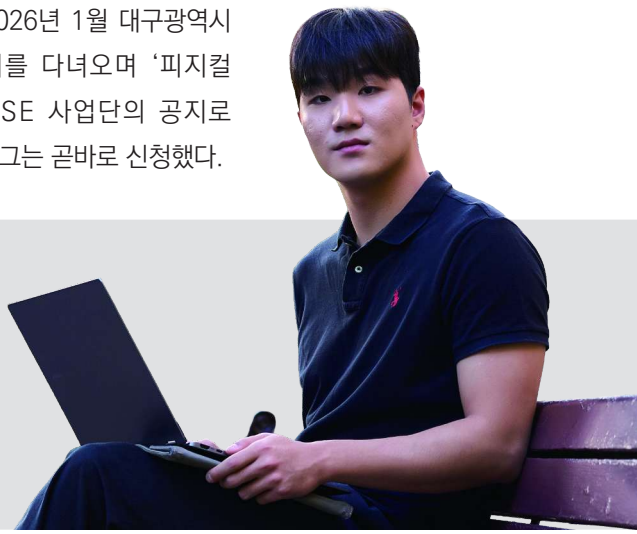
센서의 신호가 움직임이 되는 순간을 좇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문성익 학생에게 회로와 센서, 임베디드 펌웨어는 익숙한 바탕이다. 그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센서가 읽은 신호가 실제 장치의 동작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화면 안에서 정확한 답을 내는 것보다 현실의 장치가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히 반응하도록 만드는 일에 끌렸다.

교육을 결심한 계기는 두 가지였다. 2025년 11월부터 LIG D&A 산학협력 PBL에서 IMU 센서 고장 진단 모델을 만들던 그는 센서에는 익숙했지만, 그 신호가 자율주행 판단과 로봇 동작으로 이어지는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또 2026년 1월 대구광역시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의 일원으로 미국 CES 2026과 실리콘밸리를 다녀오며 '피지컬 AI'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을 목격했다. 참여하던 경북대학교 RISE 사업단의 공지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대구특화과정(자율주행 로봇 AI) 교육 소식을 접한 그는 곧바로 신청했다.



문성익 학생은 실습을 통해 여러 기술을 하나의 로봇으로 완성하는 교육으로, 현실의 장치를 끝까지 작동하게 만드는 문제 해결력을 갖췄다.





"방학 동안 그 간극을 메우고, 피지컬 AI를 직접 구현해 보고 싶었어요."

4주 만에 배송 로봇 한 대를 완성하다

2026년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20시간 진행된 '대구특화과정(자율주행 로봇 AI)'은 ROS2와 Jetson 추론, 매니퓰레이터, ArUco 마커, MediaPipe 등 여러 기술을 배우고 하나로 합쳐야 하는 고급 과정이었다. 강사가 이론을 설명한 뒤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습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팀 프로젝트는 'ROS2 기반 자율주행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이었다. 웹 주문을 받으면 로봇이 이동해 정밀 도킹하고, 사용자를 인식해 물품을 전달·회수한 뒤 복귀하는 전 과정을 구현했다.

"배송 로봇이 도착지에 닿고, 물건을 인식하고, 로봇팔로 적재해 복귀할 때 희열을 느꼈어요. 각 기능이 합쳐져 진정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려움은 기능을 통합하면서 찾아왔다. 통신 실패 로그가 먼저 뜨고 메모리 손상 오류와 함께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멈췄다. 같은 코드를 다른 보드에서 돌리자, 오류 없이 동작했다. 보드만 바꾸면 끝날 일이었지만, 그는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 보고 원인을 추적해 모터 제어 신호가 지나는 라인 드라이버 IC의 불량을 찾아 교체했다. 나아가 여러 노드를 동시에 구동하는 부하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중앙 FSM이 구간별로 필요한 기능만 켜도록 제어 구조를 다시 설계했다. 임무 완수율은 25%에서 80%로 올랐고, 같은 오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손동작 판정 방식도 절대 거리 비교에서 상대 좌표 비교로 바꾸고 5프레임 연속 검증을 더해, 평균 인식 시간을 120초에서 5초로 줄이면서 오작동은 0건으로 만들었다. 막힐 때마다 강사와 조교에게 자문했지만, 그는 무엇보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려움을 넘게 했다고 돌아본다.

가정이 아닌 실측으로 기준을 정하다

교육에서 얻은 통합 설계 경험은 창업 아이템 '스마트 바이퐁'으로 이어졌다. 2026년 1월 그가 만든 창업동아리 '블루가이즈'는 이륜차 사고 때 헬멧의 충격을 감지해 자동으로 구조 요청을 돕는 탈부착형 모듈을 개발한다. 그가 동아리 운영과 하드웨어 설계를

맡고, 정지욱(제품 기획)·장승원(앱 연동·서비스 구조 설계)·이동현(사용자 시나리오·실증 테스트)이 함께한다. 라이더가 의식을 잃어 스스로 신고하지 못해 생기는 구조 지연을 해결 대상으로 삼았다. 약 230달러인 스마트 헬멧을 새로 사는 대신, 필요한 기능만 모듈로 분리해 기존 헬멧에 붙이는 약 30달러 방식을 택했다. 센서 감지부와 무선통신, 스마트폰 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데는 일곱 개 노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본 경험이 그대로 쓰였다.

판정 기준을 실측으로 정하는 방식도 적용했다. 당초 장착하려던 ±16g 가속도 센서로는 반복 충격시험 데이터의 82%가 측정 범위를 넘었다. 그는 ±320g 고가속도 센서로 바꿔 최대 66g, 최소 14.86g를 측정했고, 이를 근거로 사고 판정 임곗값을 14g로 정했다. 임곗값만으로 걸러지지 않는 오탐에 대비해 이용자가 터치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로를 따로 뒀다. 하드웨어 개발을 마친 모듈은 현재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하며, 사고 충격 판별 모델 개발과 iOS 확장을 앞두고 있다.

교육 중 ROS2의 통신 지연 때문에 정밀 도킹 보정 단계를 따로 둬야 했던 경험은 연구 주제가 됐다. 사람이 위험한 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척수 반사 구조에서 착안해, RTOS가 센서 입력을 우선 처리하고 즉시 제동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조건을 달리한 180회 비교 실험에서 제동거리는 ROS2 단독 방식보다 평균 약 30% 줄었고, 조건별 감소 폭은 24.3~38.0%였다. 이 연구는 「척수 반사를 모방한 RTOS 기반 비상 제동 시스템」 논문으로 2026년 7월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를 꿈꾸다

성과는 창업과 취업으로도 이어졌다. 스마트 바이폿은



2026년 3월 MIT 글로벌 스타트업 워크숍 창업 경진대회 결선에서 4위에 올랐고, 8월에는 교육부 '학생 창업유망팀 300+'에 선정됐다. AI와 센서, 임베디드를 함께 다룰 수 있게 된 그는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군용기 품질팀 하계 인턴으로 일하며 시정 조치 절차 개선 업무를 맡았다.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는 접근은 품질 데이터를 다루는 직무에서도 힘이 됐다. 2027년 2월 졸업 뒤에는 지역 산업에서 임베디드·모빌리티 안전 분야 엔지니어로 일하며 창업도 준비할 계획이다.

배움을 나누는 일도 병행했다. 전자공학부 학생회장과 회로이론 튜터로 후배들의 학습을 도왔고, 교내 교육방송국 아나운서부장으로 지역의 ICT 기술·사업 정보를 학내에 전했다. 그는 전공 지식은 쌓았지만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끝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공학 전공 학부생에게 이 교육을 권한다. 자신도 그런 상태에서 시작해 4주 만에 로봇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봤기 때문이다. 이론보다 실습으로 배운 덕분에 지금도 배운 내용이 또렷하다고 한다. 방학 내내 교육을 들으며 이것이 스펙이 될 수 있을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던 그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했다.

"교육을 수강하며 많은 고민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하시면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배운 것을 활용해 바로 만들어 봅니다

- 2024.06
  포항연합기술지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운동판)
- 2025.10
  Meta Llama 해커톤 1위 (개인 업무 정보 중앙화 시스템)
- 2026.01
  CES 2026 혁신상 수상 (스마트홈 부문, Airet.io CTO)
- 2026.01
  서울 RISE 사업단 AI 창업 아이디어톤 대상 (BAESH)
- 2026.05
  BAESH 베타 오픈
- 2026.06
  영천 창업 정착 지원사업 선정(BAESH)

성공포인트

배운 기술을
곧바로 서비스에 적용

기업/팀명	참여사업	주요성과
배승환 BAESH 대표	'경일대학교 AI 팀프로젝트 교육과정' 외 8개 과정(2025~2026)	CES 혁신상· 영천 창업 정착 지원 선정

배운 기술을 쌓아 두지 않고, 청년의 프로젝트 기회로 잇는 창업가

AI와 클라우드 기술로 실제 사용자의 문제를 푸는 서비스를 만들어 온 배승환 대표는 존경하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에 발을 들였다. 2025년부터 9개 과정을 이수한 그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해 사업으로 잇는 창업가로 성장했다. 그 역량은 Meta Llama 해커톤 1위와 CES 2026 혁신상, 프로젝트 기반 커리어 플랫폼 'BAESH'의 영천 창업 정착 지원사업 선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BAESH와 개발 플랫폼 'BAESHDEV'를 실제 사용자와 기업이 쓰는 서비스로 키워 갈 계획이다.

문제를 기술로 풀어 보는 재미에 눈뜨다

경일대학교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을 전공한 배승환 대표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기획·개발해 왔다. 처음부터 창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프로젝트를 하며 자신이 겪은 문제나 주변의 불편을 기술로 해결해 보는 과정이 재미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를 실제 서비스와 사업으로 키우고 싶어졌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와의 인연은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의 추천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들어 보니 매우 유용했다.

"처음 한 과정을 들어 보고 만족도가 높아서, 관심 있는 과정이 열릴 때마다 계속 지원해 참여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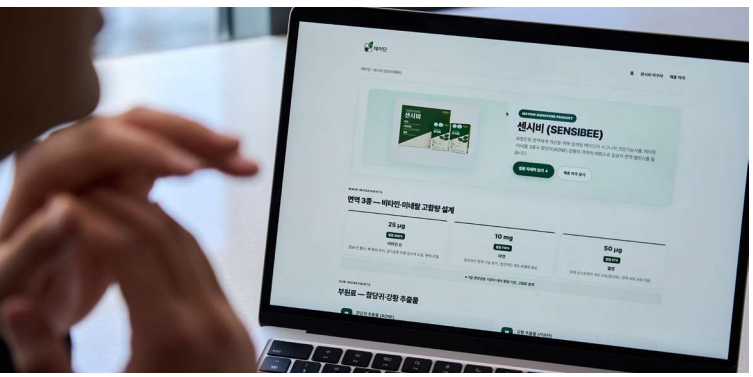
배승환 대표는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습으로 이어 배우는 단계별 교육으로,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해
사업으로 잇는 역량을 갖췄다.

1,300시간이 넘는 실습으로 기술의 폭을 넓히다

그가 이수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과정은 2025년 1월 '경일대학교 AI 팀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26년 7월 '경일대학교 AI 사이버보안 프로젝트'까지 2년 동안 수료증이 확인된 과정만 9개, 1,320시간에 이른다. 제조업 분야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금융 보안 AI까지 인공지능 고급 수준의 과정을 다섯 차례 거쳤고, 데이터 중급과정과 블록체인 기본과정으로 범위를 넓혔다. 2025년 6~7월 수강한 인공지능 고급과정에서는 우수 수료생으로 선정됐다. AI 과정에서 익힌 지식은 서비스를 기획할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가늠하고 실제 기능으로 잇는 바탕이 됐고, 블록체인과 금융 AI 보안 교육은 시스템 구조와 보안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 됐다.

수업은 단계적으로 난도가 오르는 구조이며,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AI 모델을 만들어 보는 실습 비중이 높았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 자체가 낯설었다. 그러나 직접 모델을 만들어 성능을 비교해 보면서, 같은 데이터라도 전처리와 모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낯선 기술 용어와 AI 개념을 익히며 학업과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께 직접 여쭈고, 수업 자료와 실습 코드를 반복해 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한 번 듣고 넘어가기보다 직접 다시 구현해 보는 방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



"AI와 데이터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실습하면서,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개발해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어요."

실패를 딛고 커리어 플랫폼을 세우다

그의 첫 사업화 도전은 무인 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QR코드 출입과 회원·이용권 관리를 자동화하는 '운동판'이었다. 2024년 6월 포항연합기술지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65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25년에는 대구 북구 청년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러나 서비스를 적용할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운동판은 제가 처음 제대로 겪은 실패였어요. 서비스는 개발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 실패는 'BAESH'의 밑거름이 됐다. BAESH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팀을 꾸리고, 맡은 역할과 결과물을 기록해 포트폴리오와 커리어 자산으로 남기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프로젝트 탐색과 팀 빌딩, 활동 이력 관리, 포트폴리오 자동화, 커뮤니티 기능을 갖췄다.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기록해 두고, 이후 취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5월 베타 오픈 이후 플랫폼 이용자는 약 101명, 별도 오픈채팅방 참여자는 약 50명이며, 대학·교육기관과의 실증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6월에는 영천 창업 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돼 약 3,000만 원의 지원과 함께 영천시와 연계한 사업 확장 기회를 얻었다.

BAESH는 2026년 1월 서울 RISE 사업단 AI 창업

아이디어톤 대상을 비롯해 SW 아카데미 5기 풀스택 개발자 양성 프로젝트 경진대회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상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Global Innovation Award), 부산경제진흥원(Start-up Vision Award),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Venture Entrepreneur Award)의 글로벌 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G-STAR 본선에도 올랐다. 2026년 3월에는 한성대학교 AI 캡스톤디자인 멘토 기업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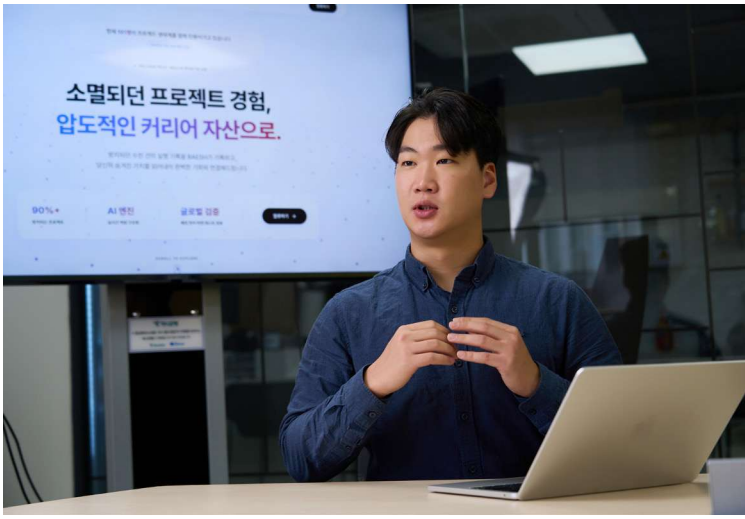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교육에서 쌓은 AI 모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정보 중앙화 시스템을 구현해 2025년 10월 Meta Llama 해커톤에서 1위에 올랐고, Airet.io 프로젝트에 CTO로 참여해 개발 전반을 총괄하며 CES 2026 혁신상(스마트홈 부문)을 받았다. 여러 프로젝트로 대경 ICT 경진대회와 교내 창업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구현 결과와 기술적 근거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개발 경험이 커리어로 남는 생태계를 꿈꾸다

다음 과제는 'BAESHDEV'다. BAESH를 개발하며 직접 겪은 개발·운영의 어려움에서 출발한 이 플랫폼은 AI 기반 개발뿐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버, 데이터베이스, 배포, 보안, 비용 관리까지 한 흐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프로젝트 경험을 BAESH와 연결해 개발 경험 자체가 커리어로 남도록 하는 방향도 기획하고 있으며, 핵심 기술과 구조에 대한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다. 그는 AI와 클라우드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갈 생각이다. MIT 글로벌 스타트업 워크숍 2026 운영위원과 구글 디벨로퍼 그룹 운영위원으로 국내외 개발자·창업가와 교류해 온 그는, 지역 청년들이 프로젝트 경험을 다음 기회로 이어 가는 연결점이 되고자 한다.

그는 AI나 소프트웨어에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물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 프로젝트나 창업으로 잇고 싶은 이들에게도 이 교육을 권한다. 여러 교육과 지원사업에 참여해 봤지만, 기초부터 고급까지 단계적으로 이어 배우며 실습으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좋았다며, 교육을 들을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교육을 듣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배운 기술을 작은 프로젝트라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배운 것을 저만 쓰지 않고 다시 가르칩니다

- **2026.01**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정’ 수강으로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 시작
- **2026.03**
  초등학교 AI 강사
- **2026.07**
  ‘가톨릭관동대 AI 고급 개발자 실무 교육과정’ 수료(160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디지털배움터 강사 활동 시작
- **2026.**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1차 선정
- **2026.**
  ‘2026년 글로벌피우다프로젝트’ 1차 선발
- **2026.10**
  누적 8개 과정 440시간 이수

성공포인트

배운 AI를 지역에서 강의로 나눔

기업/팀명

이상수
AI 강사 및 작가

참여사업

‘가톨릭관동대 AI 고급 개발자 실무 교육과정’ 외 8개 과정(2026, 440시간)

주요성과

AI 디지털배움터 강사로 200여 명 교육

이야기를 짓던 30년 내공으로 지역에 AI를 잇는 스토리 아키텍트

1993년 충무로 영화 현장에서 출발해 시나리오 작가와 편집장, 그림책 작가, 화가로 30년 동안 이야기를 지어 온 이상수 강사는 생성형 AI의 등장을 계기로 ICT이노베이션 스퀘어의 문을 두드렸다. 2026년 들어 8개 과정 440시간을 거치며 프롬프트 설계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익힌 그는 AI를 가르치는 '스토리 아키텍트'로 거듭났다. AI 디지털배움터 강사로 35회 넘게 강단에서 200여 명을 가르쳤고, '모두의 창업' 1차 선정으로 창업의 발판도 마련했다. 그는 AI 출판 솔루션 '나만의 북'을 사업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넓혀 갈 계획이다.

30년 서사 내공, AI라는 변곡점을 맞다

1993년 충무로 영화 현장에 발을 들인 이상수 강사는 《고스트 맘마》, 《찜》, 《네온 속으로 노을 지다》, 《우연한 여행》 등의 조감독과 시나리오 각색을 맡았다. 극장판 장편 애니메이션 《오디션》의 메인 각본을 썼고, 언론·잡지사 편집장과 단행본 저자로 활동했다. 그림책 《거울사막》을 펴낸 그림책 작가이자 세 차례 개인전을 연 화가이기도 하다.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과 이민 다문화를 공부한 이력도 있다. 그는 스스로를 서사 창작의 내공에 생성형 AI를 결합해 가치를 만드는 '스토리 아키텍트'라 소개한다.

전환점은 2022년 11월 ChatGPT의 등장이었다. 그는 충격과 경이로움 속에서 인류가 문명사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느꼈고,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겪어 보기로 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AI를 소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알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이상수 강사는
실습 교육과 교수진의 세심한 지도로,
30년 서사 역량에 AI를 더해
배움을 나누는 강사로 성장했다.



도구 활용을 넘어 AI를 깊이 이해하고 다루는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지인의 소개로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알게 됐다.

"30년간 쌓아 온 인문학적 서사 역량과 시각예술 감수성을 AI와 결합하면, AI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440시간 동안 활용에서 개발까지 나아가다

2026년 1월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정'과 '생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교육과정'으로 시작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의 배움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및 관리', '생성형 AI 실무 마스터', 'AI·SW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6~7월에는 160시간의 '가톨릭관동대 AI 고급 개발자 실무 교육과정'을 거쳤고, 9~10월 바이브코딩과 인공지능 에이전트 과정까지 더하면 8개 과정 440시간에 이른다. 프롬프트 활용에서 출발해 머신러닝·딥러닝 모델 구조, API 연동과 웹·앱 배포까지 단계적으로 넓힌 학습이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역할 지정과 형식 제약, 예시 제시(Few-shot)에서 검색증강생성(RAG), 추론과 행동(ReAct) 같은 고급 기법까지 차례로 익혔다.

"프롬프트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라 AI의 주의집중과 추론 경로를 설계하는 건축 도면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인문·예술 전공자에게 수학적 알고리즘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용어, 깃허브와 터미널 같은 개발 환경은 높은 벽이었다. 주중과 주말에 걸친 강행군을 기존의 강의·창작 일정과 병행하느라 체력의 한계도 느꼈다. 그런 그에게 버팀목은 가톨릭관동대 AI 고급 개발자 실무 교육과정을 맡은 장원중 교수였다. 단순한 질문도 하나하나 짚어 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준 덕분이었다. 동료 수강생들과는 '지능서가'라는 스터디를 꾸려 서로 묻고 답하며 부족한 점을 메웠다. 교육생들과 치매 조기 탐지 서비스 '다시봄'을 개발해 경진대회에도 나갔다. 바이브코딩으로는 30년 포트폴리오와 도서 아카이브를 담은 자기소개 웹앱을 만들어 배포했고, 웹앱이 필요한 이에게 직접 만들어 주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배운 것을 지역의 강의실로 옮기다

그의 배움은 강의로 이어졌다. 교육 수료와 역량 검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디지털배움터 강사로 선발된 그는 2026년 3월부터 강원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소속 파견 전문강사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삼성생명 강릉지점, 사천초등학교, 포남동 ICT 교육장 등에서 35회 넘게 강의해 200여 명을 만났다. 늘봄학교 초등학생의 AI 창작부터 보험설계사 특강,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홍보, 액티브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까지 대상도 폭넓다.

강의 준비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생성형 AI 실무 마스터'와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정'이다. 역할 지정과 형식 제약, 업무 시나리오 기반 프롬프트 설계를 집중적으로 훈련한 덕분에 삼성생명 직장인을 위한 약관 분석·고객 응대 스크립트 특강과 소상공인 마케팅 교안을 직접 기획할 수 있었다. 초등학생 수업에서는 쉬운 언어와 창작 활동으로 프롬프트 작성과 AI 창작 실습을 이끌었다.

교육 밖의 성과도 이어졌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전국 공모전인 '2026년 글로벌피우다프로젝트' 1차에 선발됐고, 교육으로 다듬은 사업 모델로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에 1차 선정돼 전문가 책임 멘토링을 받았다. 시니어의 디지털 적응과 초등학생 AI 윤리 교육으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는 데도 힘을 보탰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은 제가 단순한 학습자에서 실전 AI 강사이자 창업가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됐어요."

누구나 자기 책을 갖는 세상을 꿈꾸다

그가 사업화하려는 것은 '생애 맞춤형 나만의 북 AI 하이브리드 출판 솔루션'이다. 스마트폰에 쌓인 사진과



구술 음성을 서사 윤문과 화풍 복원, 자동 조판으로 이어지는 AI 파이프라인에 넣어 짧은 시간 안에 실물 도서로 만드는 서비스다. 수천만 원과 수개월이 들던 출판을 1주일, 30만 원대로 낮추는 맞춤형 양장본을 목표로 시니어 회고록과 소상공인 브랜드북, 신혼부부 웨딩북 등을 구상하고 있다. 막연한 아이디어에 머물던 구상을 실제 작동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것도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덕분이다. 강의도 계속 넓혀 늘봄학교 초등학생부터 70대 어르신, 골목상권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AI를 두려움 없이 삶과 생업에 쓸 수 있는 실전형 교육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그는 문학·예술·교육·서비스·마케팅 등 자기 분야에서 오래 경험을 쌓았지만, AI 시대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비전공 전문가, AI 강사나 1인 창업이라는 새 길을 열고 싶은 이들에게 이 교육을 권한다. 단편적인 온라인 특강이나 도구 소개 위주의 교육과 달리, 기초부터 고급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과 교수진의 밀착 실습 지도, 공모전·창업·지역 거점으로 이어지는 연계가 차별점이라고 한다. 그의 후배들을 향한 조언에는 늘 도전하며 살아온 경험이 묻어난다.

"AI는 여러분이 살아온 고유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장 빛나게 증폭해 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비전공자라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호기심으로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질문하고 부딪치며 두드리다 보면, 상상하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만들어 내는 자신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SQUA

충청권 우수사례

숫자로 한 눈에 살펴보는

충청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주요 성과

(~'26년 10월 기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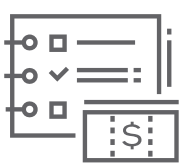
취·창업

844 명



제품·서비스

개발 36 건 / 출시 12 건



사업 수주

1 건



대외수상

18 건

64 연구에서 구현으로,
AI로 현장을 잇는 군사학 박사
김선웅 | 육군 제36보병사단 대대장

68 멈춰 있던 취업 준비를 다시 움직인
AI 관제 프로젝트
김주영 | 대전중앙전파관리소 인턴

72 111만 건의 물류 데이터에서
창고의 막힌 길을 찾은 분석
김종헌 | 육군 종합보급창 주무관



논문

1 건



특허 출원

48 건



업무협약

12 건



공모전

개최 16 건 / 지원자 1,410 명



논문에서 고민한 문제를 직접 화면으로 만듭니다

- 2025.09
  'NVIDIA AI DLI' 과정 수료
- 2025.12
  성균관대학교 군 특화 AI 교육 성과경진대회 최우수상
- 2026.02
  대전대학교 군사학 박사학위 취득(「AI 기반 정보 혁신을 통한 한반도 핵 억제력 발전 방향 연구」)
- 2026.04
  '바이브코딩으로 쉽게 완성하는 나만의 웹서비스' 과정 참여
- 2026.06
  육군참모총장급 전반기 우수 논문 · 정책제언 수상
- 2026.07
  기후에너지환경부 AX 아이디어경진대회 최우수상 (ForestGuard AX)

성공포인트

연구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직접 구현

기업/팀명

김선웅
육군 제36보병사단 대대장

참여사업

'NVIDIA AI DLI' 외 3개 과정
(2025~2026)

주요성과

군사학 박사학위 취득,
AX 경진대회 최우수상

연구에서 구현으로, AI로 현장을 잇는 군사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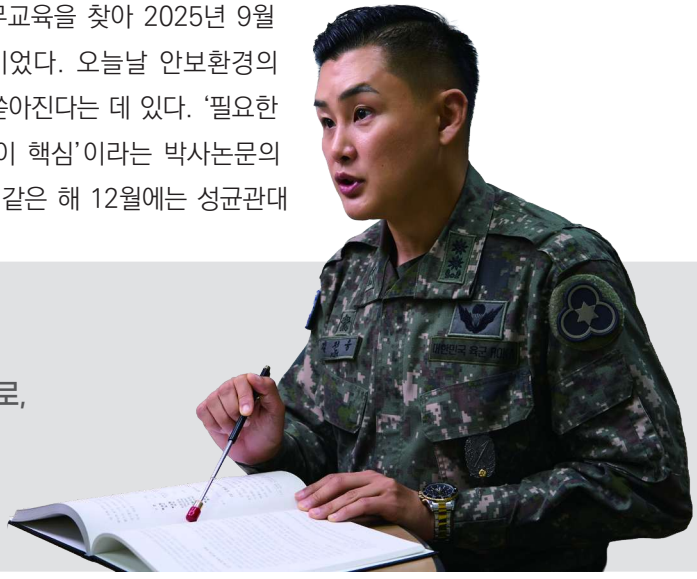
군사·안보 분야를 연구해 온 육군 중령 김선웅 대대장은 박사과정 중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NVIDIA AI DLI 과정으로 'AI 기반의 정보 혁신'을 구체화하고 2026년 2월 군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실제 시스템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는 바이브코딩과 생성형 AI 과정을 잇달아 들으며 '연구하는 사람'에서 '연구를 직접 구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 산불 대응 서비스 'ForestGuard AX'로 기후에너지환경부 AX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그 결실이다. 그는 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인간 중심의 국방 AI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사과정에서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는 법을 익히다

복잡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흩어진 정보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그것이 실제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36보병사단에서 대대장을 맡고 있는 김선웅 중령이 군사학 박사과정 내내 붙들었던 질문이다. 박사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AI 기술을 깊이 들여다본 계기는 박사과정 중에 관련 실무교육을 찾아 2025년 9월 수료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NVIDIA AI DLI 과정이었다. 오늘날 안보환경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한 것보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데 있다.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골라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박사논문의 문제의식은, 이 교육으로 AI 기술과 연결되며 구체화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성균관대

김선웅 중령은 배우고 만들고
외부 평가로 다시 다듬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논문 속 개념을 작동하는 서비스로
구현하는 역량을 갖췄다.



군 특화 AI 교육 성과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전대학교에서 「AI 기반 정보 혁신을 통한 한반도 핵 억제력 발전 방향 연구」로 군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학위를 마친 뒤 새로운 질문이 생겼다. 논문과 정책 제안을 쓰는 것과 실제 사용자가 활용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연구 아이디어를 보고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직접 화면과 서비스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비전공자도 웹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끌렸죠."

논문 속 개념을 작동하는 화면으로 옮기다

그는 2026년 4월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바이브코딩으로 쉽게 완성하는 나만의 웹서비스'를 시작으로 '생성형×피지컬 AI 온라인 부트캠프', '생성형 AI 서비스 마스터 클래스'를 차례로 수강했다. 첫 과정에서는 노코드와 AI 코딩 도구로 웹서비스를 기획·설계·구현하는 전 과정을 경험했고, 부트캠프에서는 생성형 AI와 로봇·센서 등 피지컬 AI의 연계를,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프롬프트 설계와 사용자 경험 개선, 데이터 시각화를 익혔다.

가장 큰 전환점은 바이브코딩 과정이었다.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문제를 대시보드 화면으로 처음 구현했을 때였다.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과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때 체감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작은 프로토타입부터 만들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연구의 끝이 달라졌다고 표현한다.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대안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직접 만들어 확인하게 됐다는 뜻이다. 웹서비스와 데이터 시각화를 배우며 연구자의 언어와 사용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도 깨달았다. 연구자에게 중요한 데이터라도 한눈에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표현해야 했고, 복잡한 분석 결과는 시각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군사학을 전공한 그에게 개발 용어와 구현 방식은 처음엔 낯설었다. 그는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익히려 하기보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하나를 먼저 정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을 하나씩 찾아 배웠다. 결과물을 공모전에 내 외부 평가를 받은 뒤 다시 보완하는 과정도 되풀이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은 새로운 전공을 하나 더 배우는 과정이라기보다, 군사학 박사로서 가진 연구 역량과 현장 지휘관의 문제의식에 AI 구현 역량을 더해 준 과정이었습니다."

군 밖의 공공 문제로 시야를 넓히다

이 방식은 다른 공공 분야의 문제로도 이어졌다. 'Forest Guard AX'는 산불 대응에 필요한 여러 공공데이터를 한 화면에 모아 지역별 위험도와 대응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서비스다. 위험도를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위험 정보와 위치, 우선 점검 사항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AX 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산림 관측데이터의 이상값과 결측을 다룬 'ForestPulse AI'도 같은 달 제1회 산림과학 AI 활용경진대회 창의도전상을 받았다.

군 현장의 문제의식은 'AI-DSB'로 구체화됐다. 상황보고, 상황일지, 메시지 등 흩어진 정보를 지휘관의 결심 흐름에 맞게 시각화하는 의사결정 지원 대시보드다.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 수상작에 들지는 못했지만, 박사논문에서 다룬 의사결정 지원 개념을 실제 프로토타입으로 옮긴 첫 사례가 됐다. 이 경험은 양자내성암호와 AI 이상탐지를 결합한 'KOREN-QAI Shield' 연구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학위 취득 뒤에도 드론전, 생성형 AI 기반 정신전력교육, 양자컴퓨팅 시대의 국가 암호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고, 2026년 6월에는 육군참모총장급 전반기 우수 논문·정책제언상을 받았다. 이제는 각 연구에 AI와 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를 함께 고민한다.

"군사학 박사로 쌓은 연구 역량을 논문과 정책 제안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로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로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돕는 국방 AI를 꿈꾸다

앞으로 그는 군 현장에서 생기는 방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지휘관이 상황을 빠르게 이해해 판단하도록 돕는 AI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연구할 계획이다. 그가 지향하는 것은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AI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대안을 비교하며 근거를 제시하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지는 인간 중심의 체계다. 이를 위해 AI 에이전트와 RAG, 데이터 분석을 실제 서비스 개발과 연계하는 고급 프로젝트 과정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는 분명하지만, AI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은 현업 실무자와 연구자에게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교육을 권한다. KAIST 군장병 AI 전문교육과 군 특화 AI 교육에도 참여해 봤지만, 이곳에서는 배우고, 직접 만들고, 외부에 제출해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이 달랐다. 그래서 그는 후배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의 문제를 AI와 연결해 작은 결과물부터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교육에서 배운 기술을 자신의 전공과 업무에 적용하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열흘의 교육이 팀의 결과물로 바뀌었습니다

- **2026.07**
  글로벌시스템즈 관제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참가 (7월 10일~8월 11일)
- **2026.07**
  'Develop Career: 생성형 AI 활용교육' 수강 (7월 20~31일)
- **2026.08**
  글로벌시스템즈 관제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최우수상
- **2026.**
  글로벌시스템즈 계약직 근무 제안
- **2026.**
  대전중앙전파관리소 인턴 근무 시작

성공포인트

궁금한 기술은 직접 써 보고 질문하기

기업/팀명	참여사업	주요성과
김주영 대전중앙전파관리소 인턴	'Develop Career: 생성형 AI 활용교육'(2026)	관제 프로그램 공모전 최우수상·채용 제안

멈춰 있던 취업 준비를 다시 움직인 AI 관제 프로젝트

대학을 졸업한 뒤 거듭된 구직 실패로 진로가 막막했던 김주영 씨는 지역 청년센터의 추천으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찾았다. 열흘 동안 실습으로 자동화 도구와 새로운 AI 기술을 직접 써 본 그는 다시 도전할 자신감을 얻었다. 그 자신감은 팀을 이뤄 완성한 관제 소프트웨어로 이어져 글로벌시스템즈 관제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 최우수상과 계약직 근무 제안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대전중앙전파관리소 인턴으로 실무를 익힌 그는 전공인 통신과 AI를 잇는 자율주행 연구를 위해 해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계획이다.

구직의 막막함 속에서 교육의 문을 두드리다

대학에서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한 김주영 씨는 파이썬과 C#을 다루고, .NET 개발 환경과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줄 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에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전공 지식에 더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절감하던 무렵, 지역 청년센터 선생님이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Develop Career: 생성형 AI 활용교육'을 권했다.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진 교육은 비전공자도 따라올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n8n이라는 도구로 원하는 작업을 자연어로 설명해 자동화 흐름을 만들었고, 요구사항을 작은 작업으로 나눠 생성형 AI로 구현 대안을 비교한 뒤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흐름을 익혔다.



김주영 씨는 궁금한 기술을 직접 써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직의 막막함을 작동하는 결과물로 바꾸는 자신감을 얻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써 보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시 도전할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도움이었어요."

궁금한 기술은 직접 써 보고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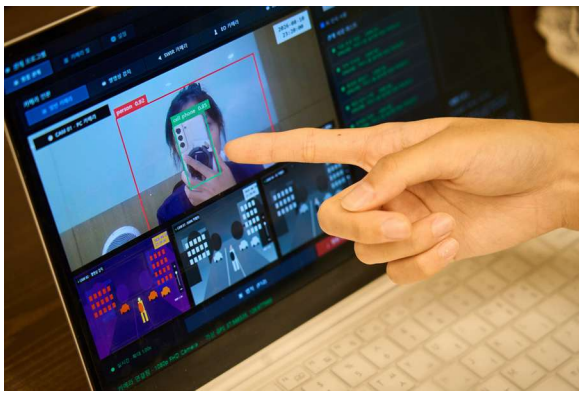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교육에서 제공한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의 관련 문서를 읽다가 MCP(Model Context Protocol)라는 기술을 발견한 일이다.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강사에게 질문해 개념과 활용법을 이해하고 직접 사용해 봤다. 교육 중에는 생성형 AI 유료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비용 부담 없이 궁금한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이후 PT 면접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보안을 지키는 방안'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답변의 재료가 됐다.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파고든 경험도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잡알리오'의 API를 활용하던 중 공고 주소가 잘못 반환돼 링크가 열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설정이 잘못된 줄 알고 하나씩 점검했지만, API에서 받은 주소를 직접 열어 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그는 잡알리오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를 찾아 실제 주소와 비교해 차이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연결되도록 고친 뒤 다른 공고도 잘 열리는지 검증했다. 확인한 오류는 관련 기관에 제보했다.

"스스로 원인을 찾아 해결해 본 경험이라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두 개의 언어를 이어 관제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다

배운 것을 시험할 무대도 있었다. 지역 기업 글로벌시스템즈가 2026년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 관제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이다. 기업이 보유한 단파장 적외선(SWIR)·적외선(IR) 카메라 등 영상감지장치 특허 기술을 활용해 현장 영상을 분석하고 이상 상황을 확인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제였다. 전공별로 이미 팀이 꾸려진 가운데 그는 남은 비전공 학생 두 명과 팀을 이뤘다.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뿐이어서 개발을 도맡았고, 팀원들은 화면 기획과 발표를 맡았다.



팀이 만든 것은 두 카메라의 영상을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하며 객체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관제 소프트웨어였다. 일반 영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환경을 카메라별 특성으로 보완하고, 관리자가 필요한 순간을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사용자 화면은 C#과 .NET으로, 영상 분석은 파이썬 기반 YOLO 모델로 처리하는 구조에서 두 영역을 잇는 일이 그의 몫이었다. 가장 큰 벽은 개인 컴퓨터의 성능이었다. 화면과 객체 인식을 함께 돌리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는 모델을 가벼운 YOLO v11 nano로 바꾸고, 구글 코랩의 GPU에 객체 인식 API를 따로 만든 뒤 ngrok으로 자신의 컴퓨터와 연결했다. 프로그램이 API에 분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받아 화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탐지된 객체의 종류와 위치, 위험 등급을 화면 요소와 연결하는 일도 그가 맡았다.

화면은 상시 영상을 나열하는 대신 이벤트 중심으로 설계했다. 객체나 드론이 지오펜스에 들어오면 즉시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관련 카메라 화면을 자동으로 확대하며, 조치 내용은 타임라인으로 저장돼 보고서로 정리된다. 야간 근무의 피로를 고려해 어두운 색조와 큰 글씨, 넉넉한 버튼 간격도 적용했다. AI 분석과 화면, 기록이 하나의 사용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각자 만든 기능이 비로소 하나의 제품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2026년 8월 12일 발표에서 팀은 관리자가 이상 상황을 알아차리고 근거를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사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기술을 설명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통신과 AI를 잇는 연구자를 꿈꾸다

수상은 진로의 변화로 이어졌다. 글로벌시스템즈에서 계약직 근무 제안을 받았고, 이후 대전중앙전파관리소 인턴으로 일하며 교육에서 배운 자동화를 실무에 적용했다.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상품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에서, 매일 오전 10시 대상 상품의 상세페이지에 적합성평가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번호가 있으면 전파연구소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도록 자동화한 것이다. 상품을 하나씩 일일이 확인하던 작업이 줄었고, 확인이 필요한 상품만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직접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나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배운 게 실제 취업 기회로 이어지니까 앞으로 어떤 역량을 더 키워야 할지도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그는 전공인 통신과 이번에 배운 AI를 연결해 공부를 이어가려 한다. 해외 대학원에 진학해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차량이나 도로 시설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에 AI를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IEEE 표준화 활동에 기여하며 세계 무대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이런 연구를 하는 학교와 연구실을 찾아보고 있다.

그는 취업을 준비하며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교육을 권한다. 개발을 해본 경험이 적어도 n8n 같은 도구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부담이 적고, 궁금한 기술이 생기면 바로 써 보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에서 알려준 내용 밖의 기술까지 배워 볼 수 있었던 점을 그는 차별점으로 꼽는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배운 걸 작은 것부터 직접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손에 있던 데이터를 직접 읽게 됐습니다

- 2023.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첫 수료 (이후 해마다 수료)
- 2024.
  품질분임조 전국대회 스마트팩토리 부문 대통령상 은상
- 2025.
  품질분임조 전국대회 대통령상 동상
- 2026.07
  '두 개의 자격증을 한번에! 스펙업 챌린지(ADsP × 빅데이터분석기사)' 수강 (100시간)
- 2026.08
  창고관리시스템 데이터 111만 3,636건 분석, 정위치 배치율 37% 확인 · 45% 목표 설정

성공포인트

현업 데이터로 관리지표 도출

기업/팀명

김종헌
육군 종합보급창 주무관

참여사업

'두 개의 자격증을 한번에! 스펙업 챌린지 (ADsP × 빅데이터분석기사)'(2026, 100시간)

주요성과

물류 데이터 111만 건 분석, 관리지표 도출

111만 건의 물류 데이터에서 창고의 막힌 길을 찾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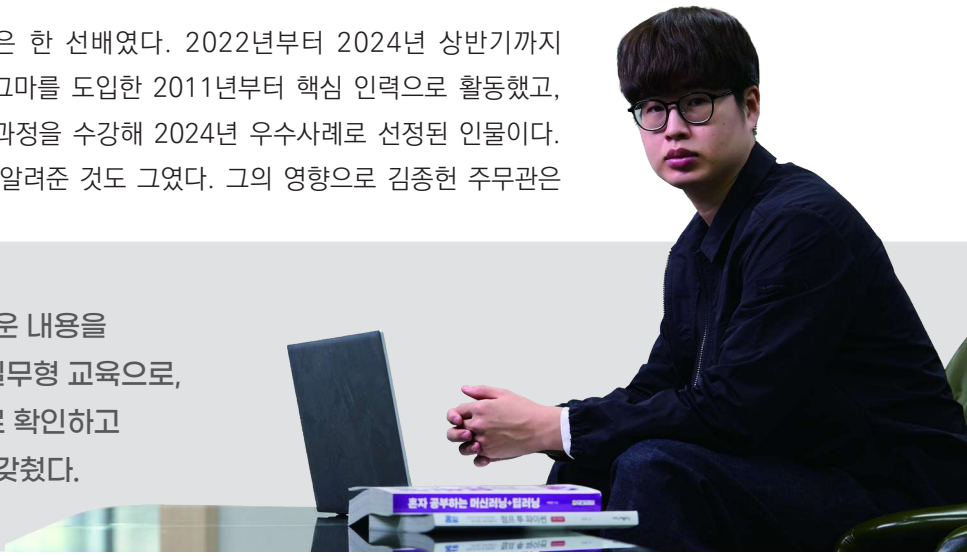
육군 물류센터에서 자동화 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아 온 김종헌 주무관은 자동화 창고의 저장구역 배정 문제를 풀기 위해 데이터 분석 과정을 찾았다. 100시간 동안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가설 검증의 절차를 익힌 그는 짐작에 머물던 현장의 문제를 수치로 확인하고 설명하는 실무자로 달라졌다. 창고관리시스템 데이터 111만여 건을 직접 분석해 정위치 배치율 37%를 확인하고, 이를 6시그마 과제의 정량 관리지표로 도출한 것이 그 결실이다. 그는 45%를 목표로 한 개선 작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데이터로 풀어 갈 계획이다.

선배의 길을 따라 데이터 앞에 서다

자동화 창고는 거대한 설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물품을 어느 셀에 배치하고 스태커 크레인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가 운영 효율을 좌우한다. 육군 물류센터에서 스태커크레인과 무인지게차, 팔레타이징 로봇 같은 자동화 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아 온 김종헌 주무관은 6시그마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현장 설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개선 과제로 잇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를 ICT이노베이션스퀘어로 이끈 것은 한 선배였다.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같은 팀에서 일한 사수는 육군이 린6시그마를 도입한 2011년부터 핵심 인력으로 활동했고,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머신러닝·딥러닝 과정을 수강해 2024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물이다. 교육뿐 아니라 품질분임조와 6시그마를 알려준 것도 그였다. 그의 영향으로 김종헌 주무관은

김종헌 주무관은 배운 내용을
현업에 곧바로 적용하는 실무형 교육으로,
현장의 문제를 수치로 확인하고
설명하는 역량을 갖췄다.



2023년부터 해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을 수료해 왔다.
2026년에는 자신이 맡은 팔레트 창고의 저장구역 배정 체계 문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골랐다.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100시간 진행된 '두 개의 자격증을 한번에! 스펙업 챌린지(ADsP × 빅데이터 분석기사)'다.

100시간 동안 현업 데이터를 함께 다듬다

과정은 데이터 이해에서 출발해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획과 탐색, 모델링과 결과 해석, 실습 환경 구축과 분석 실무, 실전 모의고사로 이어졌다. 초보자도 따라갈 수 있게 알차게 짜인 구성이었지만, 100시간은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고 뒤로 갈수록 내용도 어려워졌다. 강사와 운영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생을 챙겼고, 자격증 시험 기간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수강 기간을 연장해 줬다.

"덕분에 시험 준비까지 교육과정 안에서 끝까지 챙길 수 있었어요.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배려예요."

그는 수업의 각 단계를 현업 자료에 곧바로 대응시켰다. 보명·입출고·재입고 등 일곱 종류의 방대한 기록을 추출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덜어 내 필요한 항목만 다시 정리했다. 서로 다른 위치 표기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가장 손이 많이 간 것은 원본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었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 분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창고가 비효율적이다'라는 인상에서 출발한 문제는 정위치 배치율과 구역별 점유율, 크레인 이동시간 같은 수치로 나뉘었다. 예상한 원인이 데이터와 맞지 않으면 기각하고 다시 확인했다. 수업용 예제가 아닌 2023~2025년 창고관리시스템(WMS) 데이터 111만 3,636건을 전수 분석한 경험은 개선안을 설명하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됐다.

짐작하던 문제를 수치로 확인하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정위치 배치율이었다. 각 품목은 최근 3년간 수요 빈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1순위 구역에 우선 배정되고, 그 구역이 차면 2·3순위 구역으로 밀려난다. 그런데 1순위 구역에 제대로 놓인 비율은 37%에 그쳤다. 물량이 가장 많은 최상위 등급은 1순위 구역의 용량 부족으로 이론상 최대치도 50% 수준인 반면, 나머지 등급은 여력이 충분한데도 배치율이 30%대에 머물렀다. 한쪽은 구조적 제약이었고, 다른 한쪽은 운영으로 개선할 여지가 뚜렷한 지점이었다. 그는 재배치 효과를 검증할 다음 단계의 기준으로 개선 목표치를 45%로 정했다.
구역별 공간 사용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5개 구역 가운데 C구역만 점유율이 80%대로 유독 낮았다. 반면 열 단위로는 정상입고·정상출고·재입고·예외입고 모두 거래량이 33%대로 고르게 분포해, '작업량이 많은 곳이 붐빈다'는 설명으로는 공간 불균형을 설명할 수 없었다. 또 중요도가 높은 B구역은 필요 재고가 아닌 빈 팔레트가 64% 넘게 차지하고 있었다. 장기저장 물자와 빈 팔레트를 정리하면 전체 셀의 6.1%인 2,156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저장구역에 따라 스태커크레인의 이동시간은 70초에서 194초까지, 최대 2.77배 차이가 났다. 출고가 잦은 물품이 먼 곳에 놓이면



같은 작업에도 설비 이동이 길어진다. 배정의 오류가 곧 설비의 부하로 이어진다는 뜻이었다.

분석 결과는 보고 자료로 정리됐고, '정위치 배치율'은 6시그마 과제의 정량 관리지표인 CTQ(핵심 품질 특성)로 도출됐다. 교육 전에는 저장구역 배정을 관행에 맡기고 설비 작업부하의 편차도 체감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최근 3년간의 수요 이력으로 등급과 실제 배정 위치의 일치율을 정량 지표로 정의하고 원인 후보를 데이터로 기각·재검증하는 절차로 일한다.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부분을 이제는 수치로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됐고, 그 역량이 제가 맡은 과제의 정량 지표를 직접 도출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감이 아닌 데이터로 현장을 풀어 가다

개선 작업은 2026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2027년 전반기에 그 효과를 측정할 계획이다. 그는 개선 사업 뒤 1년간의 사후 평가를 거치면 같은 분석 방식을 다른 영역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교육의 효과는 해마다 쌓여 왔다. 품질분임조 스마트팩토리 부문 활동을 이어 온 그는 2024년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은상을, 2025년에는 대통령상 동상을 받았다. 2023년부터 이어 온 교육이 단발성 수료에 그치지 않고 현장 성과로 연결된 셈이다.

"자격증 하나를 따는 것보다, 배운 걸 곧바로 현업에 적용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경험이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거치며 감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문적 기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그는 2027년에 관련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할 계획이다. 이 교육을 권하고 싶은 대상은 현업에 미해결 문제가 있지만 분석 방법을 몰라 막막한 재직자다.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지 않고 배운 것을 현업 데이터에 곧바로 적용해 보는 실무형 구성이 다른 교육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 선배의 문제해결 방식을 같은 자동화 설비 영역에서 이어받아 넓혀 본 그는, 한 사람의 수료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 계속 이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자격증 준비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실제 문제 하나를 정해 그 데이터로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관점으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과정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NOVATION SQUA

호남권 우수사례

숫자로 한 눈에 살펴보는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주요 성과

(~'26년 10월 기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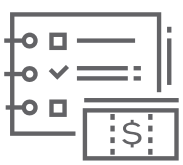
취·창업

675 명



제품·서비스

개발 112 건 / 출시 3 건



사업 수주

3 건



대외수상

41 건

78 960시간의 웹 개발 교육에서 양계장 로봇과 우주 AI까지
이혜진 | 전남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

82 160시간의 클라우드 교육에서 세 번의 수상으로 이어진 공공 서비스
정현조 | 프레인글로벌 IT 담당 매니저

86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조직의 AI 혁신
정혜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과장







논문 **1**건 · 특허 출원 **17**건 · 상표 출원 **3**건 · 업무협약 **24**건 · 공모전 개최 **62**건 / 지원자 **2,911**명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 **2025.05**
  'AI 역량 특화 웹 개발 과정' 수강 시작 (960시간, 11월 8일 수료)
- **2025.09**
  양계장 VLA 로봇 개발 착수(~2026.06)
- **2025.11**
  특허 출원(청각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길안내 LED 진동 핸들 커버)
- **2025.12**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2026.03**
  KMU-ET02 6U 큐브위성 온보드 AI 모델팀 리더
- **2026.08**
  대학 창업리그 본선 진출(양계장 VLA 로봇)

성공포인트

AI 모델 결과를 화면까지 연결

기업/팀명

이혜진
전남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학생

참여사업

'AI 역량 특화 웹 개발 과정'
(2025, 960시간)

주요성과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960시간의 웹 개발 교육에서 양계장 로봇과 우주 AI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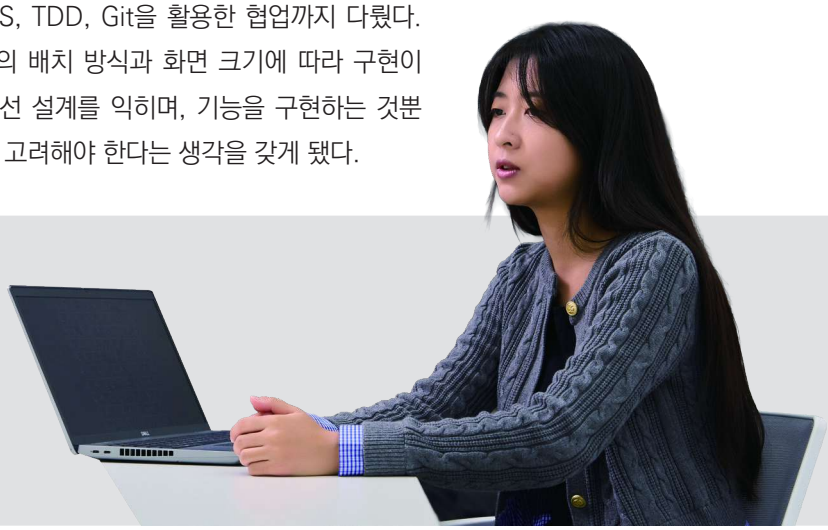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하며 관련 경력을 쌓고 싶었던 전남대학교 이혜진 학생은 SNS 광고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웹 개발 과정을 알게 됐다. 화면 구성의 기초부터 React와 Next.js, Docker와 AWS까지 익힌 그는 AI 모델의 결과를 사용자의 화면과 기능까지 잇는 개발자로 성장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에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특허 출원의 성과를 거뒀고, 양계장 VLA 로봇은 대학 창업리그 본선에 올랐다. 그는 큐브위성 온보드 AI 개발을 이어 가며 창업이나 석사 진학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수전공의 경력을 쌓으려 웹 개발에 뛰어들다

전남대학교에서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을 함께 공부하는 이혜진 학생은 주로 컴퓨터 비전 AI 모델을 만든다.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하던 그는 관련 경력을 쌓고 싶던 차에 SNS 광고를 통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AI 역량 특화 웹 개발 과정'을 알게 돼 신청했다. 2025년 5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어진 960시간의 장기 교육이었다.

해당 교육은 HTML과 CSS로 화면을 구성하는 기초에서 시작해 JavaScript와 TypeScript, React, Node.js, Next.js로 넓어졌고, Docker와 AWS, TDD, Git을 활용한 협업까지 다뤘다. 웹 퍼블리싱 수업에서는 같은 화면을 만들더라도 요소의 배치 방식과 화면 크기에 따라 구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다. 반응형 레이아웃과 모바일 우선 설계를 익히며, 기능을 구현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기기에서 어떻게 화면을 보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혜진 학생은 기자재와 AI 도구를 지원받으며 기초부터 배포까지 익힌 장기 교육으로, AI 모델의 결과를 사용자의 화면까지 잇는 시야를 넓혔다.



연구실 활동과 캡스톤디자인을 같은 학기에 병행하느라 시간을 관리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는 그는 남는 공강 시간과 주말을 최대한 활용해 수업에 집중했다. 교육과정에서 기자재를 대여받은 덕분에 수업은 차질 없이 이어졌고, 지원받은 AI 구독비는 개발하다가 궁금한 점을 묻고 피드백을 받는 데 요긴하게 쓰였다.



"960시간 동안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익히면서 화면과 서버가 연결되는 서비스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AI의 인식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하다

교육으로 개발에 흥미를 붙인 그는 광주의 스타트업 GUIDE에서 프리랜서 AI 모델 개발자로 일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을 돕는 보조기기 개발에 참여해 지팡이 하드웨어 모듈을 조립하고, 카메라로 사물과 유통기한, 점자블록, 출입구, 차량을 인식하는 AI 기능을 안내 시스템과 연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12월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으로 이어졌다. GUIDE가 만드는 여러 기기 가운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는 「청각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길안내 LED 진동 핸들 커버」 특허도 출원했다.

"제가 맡은 일은 주로 AI 모델 개발이었지만, 웹 개발 교육을 받은 덕분에 AI 모델의 인식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용자가 접하는 화면과 기능까지 함께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전남대학교 컴퓨터 비전 연구실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과제에 참여해 VLM과 LLM, 비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실험을 설계했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의 문화적 편향과 이미지·텍스트 정렬 특성을 다룬 국내 학술대회 논문 두 편을 발표했다. 평균 성능이 높아도 문화와 환경이 달라지면 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연구로 확인한 것이다.

양계장의 문제를 로봇으로 풀다

교육 기간에 만든 양계장 관리 대시보드는 연구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CCTV 영상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는 웹서비스였지만, 사람이 화면을 계속 지켜보지 않아도 폐사 개체를 찾을 수 있는지, 탐지 결과를 로봇의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로 질문이 구체화됐다. 폐사체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면 질병이 확산될 위험이 커지지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사람이 상시 점검하기는 어렵다. 그는 열화상과 VLA(Vision-Language-Action) AI로 폐사 개체를 스스로 판단해 수거하는 지능형 양계 로봇을 목표로 삼았다. 학부연구생으로 익힌 AI 모델과 데이터 처리, 교육에서 배운 웹 구현을 바탕으로, 현장 영상이 들어오면 판단을 거쳐 관리 화면과 로봇 동작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설계했다.

2025년 9월부터 캡스톤디자인으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팀의 리더로 전남·전북의 양계장을 찾아가 농장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작업 환경의 영상과 열화상 자료를 모았다. 양계장의 원본 CCTV 영상은 2테라바이트(TB)가 넘었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로봇 학습용 작업 시연 데이터 200건을 구축했다. OpenVLA-7B 모델을 H100 GPU에서 미세조정한 결과 초기 시뮬레이션의 작업 성공률은 0%였지만, 실패 장면을 다시 모아 학습에 반영하는 DAgger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완해 성공률을 94%까지 높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높은 수치가 아니라 로봇이 어느 단계에서 잘못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그 실패를 다음 학습 자료로 되돌리는 반복이었다. 프로젝트는 2026년 8월 대학 창업리그 본선에 진출했다.



지상의 경험을 우주로 넓히다

2026년 3월부터는 차세대통신사업단의 다학제간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여러 학교 학생들과 함께 KMU-ET02 6U 큐브위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쿼터니언 등과 연계해 2027년 발사될 누리호에 탑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위성이다. 그는 7명으로 꾸려진 AI 모델팀의 리더로 토지피복 분류와 산불 탐지 등 다기능 온보드 AI 모델을 개발하고, Jetson 환경에서 추론을 최적화하고 있다. 전력과 연산 자원, 통신 대역이 제한된 우주에서는 지상에서 잘 작동하는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없다. 위성이 촬영한 자료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먼저 골라내고, 통신이 지연돼도 정해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팀은 프로젝트 결과를 CES 2027에 전시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그는 창업 준비와 석사 진학 가운데 진로를 정할 계획이다. 양계장 로봇은 실제 로봇과 농장 테스트베드에서 성능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지역 농가에서 실증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농가와 협력해 호남에서 창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그가 그리는 길이다. 임베디드 AI를 연구하면서 해외시장 진출 역량도 함께 키워 갈 생각이다. 그는 AI 개발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교육을 권한다. 교육과 해커톤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열리는 경향이 있는데, 호남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는 기기 대여와 AI 도구 지원, 양질의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AI를 직접 적용해 본 사람으로서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미래에 AI 개발자를 희망하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2023.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인공지능 기본과정
  특별반 수료(160시간)
- 2025.09
  'AWS 마스터 클래스' 수강
  (160시간, 11월 수료)
- 2026.05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 Associate
  취득
- 2026.06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우수상(동행)
- 2026.07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 AI 활용
  공모전 장려상
  (SafetyEye)
- 2026.08
  조달청
  공공조달데이터 · 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케이알 비드)

성공포인트

배포와 운영까지
보는 설계

기업/팀명

정현조
프레인글로벌 IT 담당 매니저

참여사업

'AWS 마스터 클래스' 외 1개 과정
(2023~2025, 320시간)

주요성과

전국 공모전 3회 수상,
AWS 자격 취득

160시간의 클라우드 교육에서 세 번의 수상으로 이어진 공공 서비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공학을 공부한 정현조 매니저는 만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AWS 과정을 찾았다. 재직 중 저녁 수업으로 과정을 이수한 그는 네트워크와 보안·모니터링·비용까지 고려해 서비스를 설계하는 개발자로 거듭났고, 2026년 5월 AWS 자격도 취득했다. 공공데이터와 AI를 결합한 세 서비스는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관광·고용노동·공공조달 분야 전국 공모전에서 우수상 2회와 장려상 1회로 이어졌다. 그는 세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기회가 생기면 창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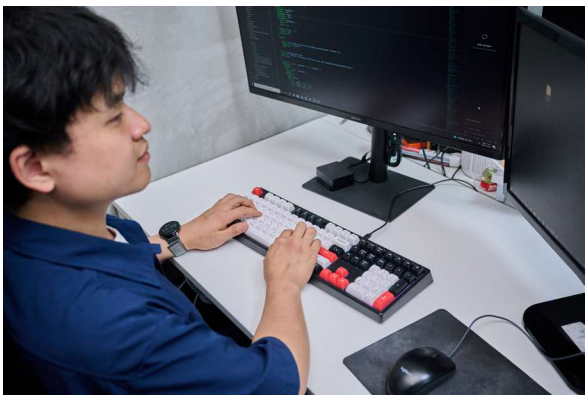
만든 서비스를 오래 운영하는 법을 찾다

전남 여수에서 자란 정현조 매니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빅데이터경영공학을 공부했다. 지금은 프레인글로벌의 IT 담당 매니저로 사용자 화면부터 서버 기능까지 다루는 풀스택 개발을 하며, 사내 그룹웨어 SOMA를 현대화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다. 팀원들과 조직·결재·근태·휴가·권한 관리 화면과 조회·승인 흐름을 개발하고, 기존 코드와 개발환경을 정리하며 오류를 고친다. 2024년에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1,600시간 동안 코딩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와의 인연은 2023년 남도학숙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운영한 인공지능 기본과정 특별반 160시간을 수료하면서

정현조 매니저는 재직 중에도 들을 수 있는 저녁 실습 교육으로, 서비스를 설계부터 배포와 운영까지 책임지는 역량을 갖췄다.





시작됐다. 이후 관심 있는 교육 안내를 꾸준히 살폈고, 2025년 8월 같은 협회에서 AWS 마스터 클래스 안내를 받았다. 회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던 그는 만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었다.

저녁 수업으로 클라우드의 설계와 운영을 익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160시간 과정은 AWS의 기본 개념부터 컴퓨팅·네트워크·데이터베이스와 보안, 모니터링, 비용 최적화를 다루며 자격시험 준비까지 아울렀다. EC2 서버와 VPC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실습과 Lambda로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기능을 실행하는 서버리스 설계도 다뤘다. 개별 기술을 익히면서 그것들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재직 중이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일과 병행해야 했다. 교육에서는 출석 기준에 따라 복습 영상을 제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운영했다. 실습용 AWS 계정과 자격시험 응시 지원도 안내받았다. 그는 수료 후에도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공부를 계속해 2026년 5월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 Associate 자격을 취득했다.

"교육에 서비스 설계 실습과 자격시험 준비가 함께 구성돼 AWS 자격 취득에도 직접 도움이 됐습니다."

그가 배운 네트워크와 보안, 모니터링 지식은 개발한 기능을 어떤 환경에서 운영할지 검토하는 기준이 됐다. 회사에서는 사내 업무의 AI 전환도 추진했다. 반복적인 정보 수집·분류·보고 과정을 AI 기반 업무 흐름으로 바꿔, 수집한 정보의 중복을 없애고 AI로 분류·요약한 뒤 담당자가 바로 쓸 수 있는 이메일 리포트와 엑셀 목록으로 자동 제공하도록 구현했다.

공공데이터와 AI로 세 개의 서비스를 만들다

수료 후에는 업무 밖에서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세 가지 서비스를 만들었다. 각 서비스는 각각 다른 동료와 2인 팀으로 개발했다. 첫 번째 '동행'은 지역 관광 담당자를 위한 AI 관광 마케팅 도구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정보와 공식 사진을 바탕으로 지역을 조사하고 관광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분석해 보도자료와 홍보 콘텐츠 초안까지 만든다. 팀장을 맡은 그는 서비스 기획과 마케팅 전략, 21개 전문가 AI 에이전트가 나눠 일하는 구조와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보도자료 작성과 기자 찾기 기능을 개발했다. 공동 개발자 이혜원 씨는 데이터 수집 흐름과 수요 분석 에이전트, 서버와 시스템 설계를 맡았다. 동행은 2026년 6월 '2026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 생성형 AI 활용 관광 프롬프톤 부문에서 한국관광공사 우수상을 받았다.

두 번째 'SafetyEye'는 안 쓰는 스마트폰을 산업안전 카메라로 바꾸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안에서 AI 모델을 구동해 영상을 분석하고, 위험 유형과 판정 근거를 관제 화면으로 보낸 뒤 3종의 표준 안전관리 보고서를 DOCX·XLSX·HWPX 문서로 만든다. 별도 카메라 구매비와 클라우드 추론비를 들이지 않으려는 구성이다. 공동 개발자 이익준 씨와 함께한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온디바이스 분석부터 중앙 API, 관제 화면, 보고서 생성까지 맡았고, 2026년 7월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에서 근로복지공단 장려상을 받았다.

세 번째 '케이알 비드(KR-BID)'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맞는 공공입찰을 찾도록 돕는 서비스다. 나라장터 공고와 첨부문서를 수집해 제목이나 본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참가 조건을 정리하고, 검색과 맞춤 추천으로 연결했다. 2026년 7월 기준 입찰공고 38,029건과 첨부문서 120,166건을 관리하며 첨부문서 118,931건의 처리를 마쳐 처리율 98.97%를 기록했다. 공동 개발자 김도이 씨와 함께 개발하며 그는 수집·처리 과정과 검색 엔진을 맡았다. 이 서비스는 2026년 8월 조달청 2026년 공공조달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았고, 웹서비스로 공개 운영되고 있다.

"교육에서 익힌 설계·운영 지식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면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개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었어요."

지역에서 실제로 쓰이는 제품을 꿈꾸다

최근 '모두의 창업'에도 지원한 그는 해커톤과 공모전에 계속 참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케이알 비드는 소규모 사업자가 맞는 입찰 기회를 쉽게 찾도록, 동행은 지역 관광 담당자가 홍보 콘텐츠를 업무에 쉽게 활용하도록 개선하고, SafetyEye는 현장의 안전 점검과 문서 작성을 돕도록 검증할 계획이다. 각 제품의 문서 처리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사업화 기회가 생기면 창업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그는 개발을 배운 뒤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방법까지 익히고 싶은 이들에게 이 교육을 권한다. 재직



중에도 저녁 온라인 수업으로 참여할 수 있고, 서비스 설계 실습과 자격시험 준비가 함께 구성돼 자격 취득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에서 성과를 얻는 비결을 후배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공유했다.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겪는 작은 문제를 직접 풀어 보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기능을 많이 넣으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써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어디서 막히는지 확인해 고쳐 보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다음에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현장의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게 했습니다

- **2026.04**
  '농생명 데이터 기반 AI 업무혁신' 과정 수강 시작 (80시간, 10주)
- **2026.06**
  과정 수료(6월 19일), 말해농 시제품 완성
- **2026.06**
  말해농 대외 공개 및 현장 홍보 시작
- **2026.07**
  관리자 페이지 추가, 이용 건수 집계 시작
- **2026.08**
  사업 상담 · 정책 안내 · 의견 수집 기능 추가
- **2026.09**
  누적 이용 약 250건 (관리자 페이지 집계 기준)

성공포인트

현장 아이디어를 조직의 서비스로

기업/팀명

정혜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과장

참여사업

'농생명 데이터 기반 AI 업무혁신' (2026, 80시간)

주요성과

'말해농'으로 담당자 찾는 시간을 80% 단축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조직의 AI 혁신

언어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코딩을 전혀 몰랐던 정혜준 과장은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AI 학습팀 운영을 맡으며 ICT이노베이션스퀘어의 '농생명 데이터 기반 AI 업무혁신' 과정에 참여했다. 바이브코딩으로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법을 익힌 그는 지사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농지 민원 안내 앱 '말해농'으로 키워 냈다. 현장을 발로 뛰며 고쳐 나간 말해농은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는 시간을 3분 16초에서 40초가량으로 80% 줄였다. 그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말해농을 전국 단위의 농정 통합 서비스 창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앱이 시작되다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로 발령받은 정혜준 과장은 대학에서 언어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비개발자였다. 그런 그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하나가 본부 AI 학습팀 운영이었다. 직원들이 AI를 업무에 적용하도록 돕는 자리였다.

현장에는 이미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농지 민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여러 기관의 업무가 얽혀 있어, 민원인이 어디에 가서 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농지 임대', '농지 매매'는 모두 같은 농지 일처럼 보이지만 담당 기관은 저마다 달랐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매일 마주하던 지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 민원인이 사업명이나 기관을 몰라도 평소 쓰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면 담당자를 찾아 주자는 것이었다. 정혜준 과장은 그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혜준 과장은 문제 정의부터
짚어 주는 수업과 직접 구현해
발표하는 실습을 거치며,
AI를 업무 혁신의 도구로 삼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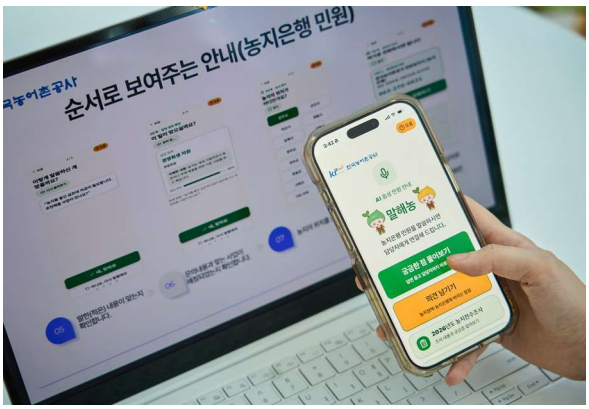
"좋은 아이디어를 직접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현장의 아이디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실제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개발자가 바이브코딩으로 첫 앱을 만들다

그 길을 열어 준 것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이었다. 정혜준 과장은 2026년 4월부터 10주간 80시간 진행된 '농생명 데이터 기반 AI 업무혁신' 과정에 참여했다. 수강생 모두가 비개발자였던 만큼 강사는 눈높이를 맞춰 설명했고, 수업마다 이론 시간을 넉넉히 할애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기법을 짚어 줬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이브코딩으로 구현해 발표하던 시간이다. 코드를 몰라도 말로 설명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 화면이 됐고, 그 결과물을 서로 나누며 모두가 뿌듯함을 느꼈다. 말해농의 첫 모습도 그렇게 태어났다. 이용자가 민원을 말하거나 입력하면 업무를 분류하고 관할 농지은행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단순한 앱이었다. 그는 데이터를 모아 검증하며 범위를 넓혔고, 농업경영체 등록처럼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가 몰리지만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도 유사 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을 통해 막연하기만 하던 AI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AI가 업무를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완성품 하나가 아니라, 생활 속 문제를 계속 찾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은 셈이에요."



써 보고 다시 고치며 서비스를 키우다

말해농의 진짜 이야기는 첫 버전이 나온 뒤에 시작됐다. 앱을 대외에 공개했지만 쓰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정혜준 과장은 발로 뛰었다. 농지은행을 찾은 고객에게, 마을 복지관에서, 농어민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말해농을 알렸다. 배포 두 달 뒤 관리자 페이지를 붙인 이후에만 250건가량의 이용 기록이 쌓였다.

말해농을 사용한 현장에서는 잘못 등록된 담당자 번호가 나왔고, 분류에서 빠진 농지은행 사업도 드러났다. 그는 하나씩 고치며 업무 분류 체계를 다시 세우고, 민원인이 실제로 쓰는 표현을 보강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앱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실제 사용자가 '이 사업은 왜 안 나오지?', '이 번호는 바뀌었는데?'라고 말해 주는 게 오히려 서비스 발전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어요."

피드백은 새로운 기능이 됐다. 관련 사업을 간단히 설명하는 상담 기능, 농지전수조사 같은 새 정책을 알리는 기능, 농지은행포털로 이어지는 연결, 이용자의 의견을 말로 받아 텍스트로 저장하는 기능이 차례로 더해졌다. 담당자를 찾아 주던 앱이 정책을 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창구로 자란 것이다. 민원인이 담당 부서에 닿는 길도 짧아졌다. 업무 검색에서 담당 부서 연결까지 4단계를 거치던 일이 말하기와 연결의 2단계로 줄었고,

담당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3분 16초에서 40초가량으로 약 80% 단축됐다.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되돌리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앱은 없으니 실증과 보완을 계속 거쳐야 하는데, 아직은 그걸 손으로 해야 하는 불편도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닌 조직이 함께 혁신하다

정혜준 과장은 자신을 혼자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의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잇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말해농은 제가 처음부터 혼자 생각해서 만든 서비스가 아니에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저는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쓰이고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는 조직의 AI 혁신이 직원 개개인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실행을 돕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생성형 AI와 바이브코딩 덕분에 이제 현업 직원도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들고 검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이 개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문제를 제안하면 조직이 함께 구체화하고 실험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AI 업무혁신은 뛰어난 한 사람이 좋은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선 안 돼요.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내고, 누군가는 발전시키고, 다시 현장에서 쓰며 함께 개선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어요."

말해농은 지금도 변하고 있다. 오류가 발견되면 데이터를 고치고, 새 농지은행 사업이 생기면 업무 분류를 더하며, 이용자가 자주 쓰는 표현을 확인해 자연어 데이터를 보강한다. 앞으로 그는 말해농의 정확도를 높이고 실증을 이어 가며, 유관 농정 기관과 협의해 안내 기능을 넓힐 계획이다. 지금은 전북 지역 기관만 안내하지만, 전국으로 확산해 농정 통합 서비스 창구로 도약하는 발판을 놓는 것이 목표다. 말해농에서 얻은 경험은 본부의 다른 업무로도 넓혀 갈 생각이다.

그는 AI에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모든 이에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을 권한다. 문제를 정의하는 사고방식만 있다면 그 문제를 AI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배 교육생들에게 건네는 한마디도 시원하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AI가 있다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AI STORY, AI로 써 내려간 변화의 이야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2026 우수사례집

발행일	2026년 11월
발행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043) 931-5000 www.nipa.kr
기 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인재팀
디자인·인쇄	한결엠 02) 6952-0551 www.hgm6952.com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202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 제작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소유이므로 사전 승인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I STORY, AI로 써 내려간 변화의 이야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2026 우수사례집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POHANG TECHNOPARK
(재)세종테크노파크 SEJONG TECHNOPARK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Gangneung Science & Industry Promotion Agency
충북과학기술혁신원 Chungbuk Innovati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gica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Chungnam Techno Park
WFI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WONJU FUTURE INDUSTRY
gicon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GWANGJU INFORMATION & CONTENT AGENCY
IACT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Joia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Jeonnam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부산정보산업진흥원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JIPA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Jeonju IT&CT Industry Promotion Agency
UIPA 울산정보산업진흥원 ULSAN ICT PROMOTION AGENCY
제주산학융합원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Gyeongnam Technopark
ITP 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본 QR코드를 스캔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방문해보세요!

비매품/무료
95560
9 788961 084864
ISBN 978-89-6108-486-4 (PDF)